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국내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의  
유형별 현황 연구

음 악 교 육 전 공

조 윤 선

2010

국내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의  
유형별 현황 연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 년 7 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음 악 교 육 전 공 조 윤 선

# 조 윤 선 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지도교수 주 희 선 \_\_\_\_\_

심사위원 박 은 혜 \_\_\_\_\_

주 희 선 \_\_\_\_\_

정 소 희 \_\_\_\_\_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I.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C. 연구의 제한점 .....	4
D. 선행연구 .....	4
II. 이론적 배경 .....	7
A. 현대음악의 개념 및 창작 음악의 의미 .....	7
B. 콩쿠르의 교육적 효과 및 의의 .....	9
C. 해외 작곡 콩쿠르의 사례 .....	12
III. 연구의 결과 .....	15
A. 국내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의 유형별 분류 .....	15
B. 국내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의 유형별 현황 .....	23
C. 연구결과 요약 .....	53
IV. 결론 및 제언 .....	57
A. 결론 .....	57
B. 제언 .....	59
참고문헌 .....	60
ABSTRACT .....	63

# 표 목 차

1. <표 1> 해외 작곡 콩쿠르 현황 .....	12
2. <표 2> 국내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 작곡캠프의 유형별 분류 .....	15
3. <표 3> 주최기관별 작곡 콩쿠르 공모전 개최 현황 .....	16
4. <표 4> 제출 작품 규정별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 개최 현황 .....	18
5. <표 5> 국내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의 심사유형과 시상내용 .....	21
6. <표 6> 국내 작곡 콩쿠르 현황 .....	23
7. <표 7> 국제 윤이상 작곡상 요강 .....	25
8. <표 8> 김순애 창작 가곡 콩쿠르 요강 .....	26
9. <표 9> 동아음악콩쿠르 요강 .....	27
10. <표 10> 음연 작곡콩쿨 요강 .....	28
11. <표 11> 영남 작곡콩쿠르 요강 .....	30
12. <표 12> 음악저널 전국 음악콩쿠르 요강 .....	31
13. <표 13> 음연 작곡콩쿨 요강 .....	32
14. <표 14> 중앙음악콩쿠르 요강 .....	34
15. <표 15> 창악회 작곡콩쿨 요강 .....	35
16. <표 16> 카리엔 현대음악 작곡콩쿠르 요강 .....	36
17. <표 17>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 요강 .....	37
18. <표 18> 향사회 작곡콩쿨 요강 .....	38
19. <표 19> 화천비목콩쿨 요강 .....	39
20. <표 20> 국내 작곡 공모전 현황 .....	41
21. <표 21>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작품공모 요강 .....	42
22. <표 22>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공모 요강 .....	43
23. <표 23> 범음악제 작품 공모 요강 .....	44

24. <표 24> 서울창작음악제 요강 .....	45
25. <표 25> 운지회 작품공모 요강 .....	47
26. <표 26> 한국 창작음악합창제 작곡공모 요강 .....	48
27. <표 27> 한민족 창작음악축전 요강 .....	49
28. <표 28> 국내 작곡 캠프 및 여름학교 현황 .....	51
29. <표 29> 창악회 여름 작곡 캠프 요강 .....	51
30. <표 30> 향사회 여름 작곡 캠프 요강 .....	52
31. <표 31> 대관령국제음악제 음악학교 요강 .....	53

## 논문개요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은 재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좋은 작품을 발굴하여 연주하는데 의의를 두고 개최되어 전공자들에게 공평한 창작의 기회를 주고 그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 여름캠프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개최목적과 작품제출규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작곡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에게 작곡콩쿠르와 공모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 작곡 캠프를 대상으로 하여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현황을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콩쿠르와 공모전의 개최취지는 유능한 신인의 발굴과 창작 작품의 확충하는데 있다.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대학생들과 젊은 작곡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콩쿠르와 공모전을 개최하는 데 있어 신인을 발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연주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의 제출 작품 규정은 실내악, 가곡 및 합창곡, 관현악 및 협주곡, 피아노 부문으로 4개의 모집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콩쿠르와 공모전에 참가하는 작곡 전공자들은 각자 원하는 작품 부문에 참가할 수 있다.

셋째,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서의 심사는 악보심사와 연주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의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최기관에서 심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결과를 공개하여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콩쿠르와 공모전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넷째, 시상은 최고상을 기준으로 1위 또는 대상이 시상되고 있으며,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서는 특전으로 연주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번의 연주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주기회를 제공하여 창작곡의 연주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은 학교의 정기연주회를 통해 연주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것만으로는 작품 연주가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다.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의 참가를 통해 작곡 전공자들은 그 준비 과정에서 자신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권위 있는 콩쿠르에서의 입상은 작곡가로 나아가는 등용문이 된다. 따라서 작곡 전공자들은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고 작품 연주의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자기 작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신에게 맞는 콩쿠르와 공모전에 지원해야 한다.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의 적극적인 참여는 창작음악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나아가 국내의 창작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작품들의 발표는 한국 창작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어 감에 따라 전문 음악학습에 대한 열망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열망은 전문음악인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목표를 두게 하였으며, 훌륭한 전문음악인을 만든다는 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음악콩쿠르의 참가가 더욱더 활발하게 되었다(손혜숙, 1980).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음악 콩쿠르들이 개최되어오고 있는데, 이들은 크게 악기와 성악 등의 연주 부문과 작곡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되고 있다. 이들 콩쿠르를 주최하고 있는 주최측은 신문사, 잡지사, 각종 단체 및 협회, 학교 등 매우 다양하다. 콩쿠르는 그 목적을 우수한 신인의 발굴과 음악 기술 향상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콩쿠르는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권위 있는 콩쿠르에 입상할 경우 그 보상이 크기 때문에 콩쿠르 참가자들의 많은 연습량을 필요로 한다.

창작은 음악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작곡 콩쿠르는 음악 콩쿠르 내에서 작곡 부문의 개최 또는 작곡만을 위한 콩쿠르, 공모 작품 모집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참가 대상은 초·중·고등학생과 대학, 대학원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작곡 콩쿠르는 소수에 불과하다. 작곡 콩쿠르의 대부분은 대학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들과 대학 졸업 이상의 젊은 작곡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 음악발전사에서 콩쿠르는 자극과 동기를 끊임없이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이일, 2007). 작곡 콩쿠르 및 작곡 공모전은 작곡 전공자들과 젊은 작곡가들의 등용문이자 실력 인정의 장으로서 콩쿠르와 공모전의 참가를 통해 작곡가들에게 공평한 창작의 기회를 주고 의욕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그들에게 작곡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공모전은 좋은 작품을 발굴하여 연주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연주의 기회가 부족한 작곡 전공자 및 젊은 작곡가들에게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콩쿠르를 통해 참가자 개인은 음악적 발전을 이루며, 나아가 콩쿠르의 공개 심

사 과정은 일반인의 호기심을 자극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증폭시킨다. 이는 음악계 전반의 활성화 방안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콩쿠르는 음악의 창작과 발전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작곡가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고 재능 있는 신인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콩쿠르에 참여하기 위해서 작곡 전공자들에게는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의 개최목적, 개최 기간, 참가 자격, 심사 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국내에서는 수많은 음악 콩쿠르가 시행되고 있지만 피아노콩쿠르에 대한 연구나 청소년 콩쿠르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 이루어 졌을 뿐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 대한 선행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콩쿠르와 공모전, 여름캠프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개최목적과 작품제출규정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작곡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에게 작곡콩쿠르와 공모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 참가하는 작곡 전공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고 있는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 여름 음악 캠프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조사하였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콩쿠르와 공모전에 대해 조사가 먼저 이루어졌으며, 한국음악협회와 한국작곡가협회 홈페이지 및 협회 산하단체 홈페이지, 2009년도 「문예연감」의 2008년 양악경연대회 편람과, 콩쿠르 브로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을 수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음악 콩쿠르가 개최되고 있으나, 그들의 대부분은 피아노, 바이올린 등 악기 연주의 실력을 겨루기 위한 콩쿠르이다. 참가자격에 있어서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콩쿠르 등 매우 다양한 콩쿠르가 개최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작곡 전공자 대상의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 대해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음악 콩쿠르 내 작곡 부문을 개최하는 콩쿠르와 작곡만을 위한 콩쿠르는 국내에서 총 17개의 작곡 콩쿠르가 개최되고 있다.

작곡 공모전은 음악협회 또는 음악제에서 개최하고 있다. 순위를 가르는 콩쿠르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공모전도 있지만, 좋은 작품의 연주를 목적으로 하는 공모전도 있다. 따라서 공모 작품에 선정되면 상장이나 상금 없이 음악회에서 작품이 연주되기도 한다. 국내에서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모집하는 작곡 공모전은 총 10개의 공모전이 개최되고 있다.

국내에서 작곡 캠프와 음악학교는 세 곳에서 열리고 있다. 작곡협회인 창악회와 향사회에서는 여름방학기간 동안에 작곡 캠프가 개최되고 있으며,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는 여름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콩쿠르와 공모전은 주로 음악협회와 언론사 등의 주최로 개최되고 있으며 그 수는 30여개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개최되고 있지 않는 서울국제작곡콩쿠르와 ACL신인작곡콩쿨, CBS창작가곡콩쿨과 국악창작곡을 대상으로 하는 동아국악콩쿠르, 21C한국음악프로젝트, 전자음악곡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Fest-m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3개 작곡 콩쿠르와 7개의 공모전, 3개의 작곡캠프와 여름학교를 연구의 범위로 한다.

##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대음악과 콩쿠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였고,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세계국제음악콩쿠르연맹(WFIMC)에 가입된 국제 콩쿠르를 권위있는 콩쿠르로 인정하여 해외 작곡 콩쿠르 사례로 제시하였다.

국내에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되었거나 개최 예정인 있는 음악 콩쿠르의 작곡 부문과 작곡 콩쿠르, 작곡 공모전과 여름 작곡 캠프, 여름학교에 대해 조사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음악 대학 게시판을 통해 콩쿠르 브로셔를 수거하였고 각 콩쿠르와 음악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수집한 내용을 콩쿠르, 공모전, 여름 캠프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콩쿠르와 공모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최기관, 개최취

지, 개최주기 및 개최월, 참가자격, 제출 작품 규정, 심사 및 연주, 시상내용 및 특전의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았다.

작곡 콩쿠르 및 작곡 공모전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작곡 전공자들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 C.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개최되었거나 개최 예정인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때 2010년 현재 본 연구자가 현황을 파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고되지 않은 콩쿠르와 공모전은 2009년도 공고를 기준으로 하였다.

둘째,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국내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음악 콩쿠르 내에서 작곡 부문이 개최될 경우 작곡 콩쿠르로 포함시켰다.

셋째, 국내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 대해 연구자가 수집한 브로셔 및 각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에 기초하여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콩쿠르나 공모전이 있을 수 있다.

### D. 선행연구

콩쿠르에 관한 연구로는 피아노콩쿠르에 대한 연구와 수시입학에 관한 콩쿠르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 또한 소수의 연구만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작곡 콩쿠르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손혜숙(1980)은 ‘음악콩쿨의 효능과 그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음악콩쿠르의 효과와 영향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며 나아가 음악콩쿠르의 평가와 개선점을 발견하여 콩쿠르의 권위를 향상시키고 유능한 음악인을 개발하고 육성하여 우리

나라 음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콩쿨은 학습의 의욕을 증진시키고 인내력을 길러 주는 등 바람직한 영향이 있는가 하면, 우월감과 열등감을 일으키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안수진(2004)의 ‘고교생 대상 음악콩쿠르와 대학수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연구’에서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콩쿠르와 대학 수시 입학의 관계를 연구 분석하여 콩쿠르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및 음악교육에 대해 연구하였다. 다수의 콩쿠르가 있지만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수의 콩쿠르였으며, 음악콩쿠르는 교육적으로 한 개인의 전인적, 심미적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초등학생의 피아노 콩쿠르에 대한 연구로는 박태희(2006)의 연구가 있다. ‘초등학생 피아노콩쿠르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연구: 부산·김해를 중심으로’에서 부산과 김해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피아노 콩쿠르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홍종건(2005)은 ‘청소년 합창제와 경연대회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지도방안 연구’에서 청소년 합창제와 경연대회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찰하여 선곡에 따른 알맞은 지도법을 모색하였다.

콩쿠르에 대한 견해는 학회지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강순(1986)의 ‘서울에서 개최되는 5개 주요 피아노 콩쿠르 지정곡에 대한 연구’에서 청소년을 위한 콩쿠르 지정곡들을 수집하고 각 지정곡들이 내포하고 있는 연주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콩쿠르의 수준 및 동향을 알아보았다. 연구에서는 콩쿠르가 학생의 연령에 비해 기교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지나치게 어려운 곡의 연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음악적으로 무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작품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콩쿠르란 음악 학습에서 하나의 수단이 지 결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였다.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 제출하는 작품은 창작 작품으로 정지영(2008)은 ‘한국 현대 창작 작품의 사회·문화적 활용성에 대한 제안적 연구’에서 창작 작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한국의 현대 창작 작품들은 음악회를 통한 연주 및 발표가 청중과 소통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양한 학술적 가치와 예술적 경향들을 가진 한국의 창작 작품들은 음악이 가질 수 있는 사회적이고 예술적인 기능면에서 그 활용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적 창작 작품들에 대한

작곡 기법적 접근연구를 통해 독창적이고 전통적인 색채감과 한국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론적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적 수준에서의 작곡기법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창작 작품 그 자체 또는 여러 활용 방안들은 사회, 문화적으로 음악적 기능과 역할을 더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창작 작품을 통한 음악의 학문적 가치와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음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음악 콩쿠르와 한국의 창작 작품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내 음악 콩쿠르에 대한 연구는 피아노 콩쿠르에 대한 연구와 초·중·고등학생의 음악 콩쿠르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 전공자들의 콩쿠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작곡 콩쿠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 개최되고 있는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A. 현대음악의 개념 및 창작 음악의 의미

#### 1. 현대음악의 개념

‘현대’의 의미는 지금의 시대 혹은 역사학의 시대 구분 가운데 사상(思想)이나 그 밖의 것이 현재와 같다고 생각되는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기를 뜻한다. 그러나 ‘현대음악’이라는 용어에서의 음악적 현대는 그 일상적 의미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더 확장되어 한 세기에 가까운 시대를 가리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음악’ 앞에 붙는 ‘현대’는 시대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양식적인 개념, 즉 음악양식에 있어서의 모더니즘을 뜻하는 용어에 훨씬 가깝게 쓰인다(이석원, 1997). 그리피스(P.Griffiths, 1994)는 음악에 있어서 현대라는 개념은 연대보다는 미학이나 기법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고, 코플랜드(A. Copland, 1987)는 우리들 자신의 시대에 알맞은 객관적인 새로운 정신을 전 시대보다 더 풍부한 음악적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한 것을 현대음악이라 하였다.

위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현대음악은 과거의 조성음악에서 사용되는 전통적 표현기법을 벗어나 과거와는 다른 다양하고 새로운 기법과 표현 양식에 의해 만들어진 20세기 음악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또한 그들의 작품세계 또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와 기법이 전 시대와는 다른 사상과 기법으로 쓰여진 음악으로 그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성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

살즈만(E. Salzman, 2001)은 그의 저서 「20세기 음악」에서 20세기 음악의 역사는 2개의 큰 주기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1900년 이후 기능적인 조성의 포기, 제1차 세계대전 이전과 이후의 거대한 새로운 소재들의 탐구, 그리고 이에 뒤따른 새로운 조성과 12음 합성이라고 하였다. 둘째는 제2차 세계대전 뒤에 오는 아주 다르지만 유사한 일단의 거부, 새로운 시작, 탐구, 분석, 그리고 합성이라 하였다.



전통에서 벗어나려는 새로운 시도는 21세기에서 음악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에는 인상주의, 표현주의, 무조음악, 12음계음악, 신고전주의, 실용음악 등이 나타났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50년대 이후에는 음렬음악, 구체음악, 전자음악, 우연성음악, 음향작곡, 미니멀음악 등의 다양한 음악적 시도가 나타났다.

## 2. 창작 음악의 의미

창작 작품이란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 창작 과정을 통하여 생산되는 결과로서 창작 작품은 창작한 사람의 특성을 반영하며 창조적인 사람은 독창성, 유창함, 유연성의 세가지 특성을 내포한다(장근주, 200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 현대음악에 있어서 창작은 한국적 정체성을 구체화시키고 대표성을 가진 한국의 음악으로 전파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음악적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을 창작하는 활동은 다양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특별히 20세기 이후 작곡 분야는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 현대 창작 작품들에 대한 활용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연주회의 하나의 작품 목록으로 연주되어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창작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와 연주는 창작 작품들이 일반 청중에게 들려질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음악이 가지는 문화적 영향력이 강한 것에 비해 한국에서 창작되어지는 많은 음악작품들이 그 활용적 용도와 방안이 제시되어지지 못하고 사장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정지영, 2008).

21세기는 창의성의 시대로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예술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창의성은 예술교육을 통해 장려하고 발달시켜야 하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WCAE)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창의성은 인간 능력의 가장 지고한 발산양태 중 하나로, 교육은 마땅히 그것을 장려하고 발달시키고자 노력해야 하며, 예술교육은 개성과 사회성, 즉흥성과 비판적 사유, 감성과 지성의 복합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학습에만 치중하던 전통적 예술교육에서 벗어나 실습이 유의미한 창조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사유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며 또한 일련의 규칙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믿음과, 예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술작품에 반응하는 것

또한 가르쳐야 한다(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홈페이지, <http://www.artsedu2010.kr>).

미국의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는 음악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음악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12년째 각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베리 영 컴포저’(very young composer)라는 프로그램이, 서울에서 열린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행사 중 하나로 개최되었다. 이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예술 강사가 작곡을 가르치고, 전문 연주가의 연주로 자신이 작곡한 작품을 들어볼 수 있게 하여 음악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곡은 음악에서의 창작 활동으로서 창작 작품을 통해 작곡가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고, 국내 현대음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작은 기성 작곡가나 작곡 전공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 교육을 통한 창작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게 한다.

## B. 콩쿠르의 교육적 효과 및 의의

### 1. 작곡 콩쿠르 및 작곡 공모의 의의

음악 콩쿠르란 음악의 일정한 규정 아래서 겨루는 행사로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신인이나 단체를 경연시켜 심사해서 특히 우수한 자를 표창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즉, 작곡이나 연주에 관한 재능을 경기방식으로 헤아려서 개인이나 단체의 능력의 우열에 따라 표창하는 제도나 조직을 말한다(음악대사전, 1996). 콩쿠르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경기 때 개최된 예술 콩쿠르에서 시작되며, 르네상스시대에도 작곡 분야의 콩쿠르가 시행되었으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음악 콩쿠르의 대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생긴 것이다(야후백과사전,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

공모(公募)란 널리 일반에게 공개로 모집하는 일을 뜻한다. 영어로는 contest,

award, competition, challenge 등의 단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지금은 대체로 작품이나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과정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음악에서의 공모는 대부분 작곡 분야의 작품 공모에서만 쓰이고 있다.

콩쿠르는 전인교육으로 음악의 자세를 확립하고 음악교육을 중요시 여김에 따라 교육적인 견해로 행하여졌으며, 이러한 정의에서 볼 때 콩쿠르는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악자체의 연주가 콩쿠르의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콩쿠르에 대한 견해가 음악교육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또 콩쿠르는 내용에 따라 여러 분류가 가능한데 작곡, 작곡 연주를 포함한 것, 기악, 성악, 특수한 장르 등의 분야로 나눌 수 있고, 개최 시기와 장소에 따라 정기, 부정기, 임시, 국내, 국외와 같은 분류도 가능하다(손혜숙, 1980).

작곡 분야의 콩쿠르 및 작품 공모는 미리 발표된 악기편성·길이·형식·장르에 따라 작곡한 작품의 악보를 지정 기일까지 주최측에 보내고 심사를 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악보심사와 연주 심사로 이루어지며, 특히 최종심사에서는 실제 연주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작곡 콩쿠르는 창작 작품에 대한 후원이 될 수 있다. 후버(J. Hoover, 1986)는 「Music Educators Journal」에서 작곡가의 창작 장려를 위해 콩쿠르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효율적으로 콩쿠르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제출 작품 규정, 대회 목적 및 개최 기간, 제출 작품에 대한 공정한 심사, 작품 심사에 대한 기준, 작품에 대한 저작권, 시상 내용 및 부상 등의 내용이 규칙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각각의 콩쿠르의 목적은 다르지만 잠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작곡 전공자나 신인 작곡가를 육성하기 위해 개최된다.

박찬석(1979)은 콩쿠르의 의의는 숨은 인재를 발굴해서 음악계에 널리 소개하고, 교육적으로 운영해서 보다 발전 향상을 꾀하는 일이라 하였다. 작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콩쿠르와 공모 작품 모집은 등용문으로서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며, 작품 연주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자신의 작품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콩쿠르와 공모 작품 모집은 작품을 창작하게 하는 동인이 되며, 입상하였을 경우 연주기회를 가지게 되어 이는 곧, 작곡가로서의 등용문의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 2. 작곡 콩쿠르의 교육적 효과

음악은 인간의 창의적인 속성에서 비롯되는 문화로서 작곡가들에 의해서 창작되고, 연주자들에 의해서 재창조되며, 청중들은 창조적으로 해석하여 감상한다(권덕원, 1996). 작곡가들에 의해서 창작되는 창작 작품은 음악적 경험의 다양성과 함께 창작 과정의 결과물로서 작곡가가 가지고 있는 민족적 정서, 독창성, 주관적 감정이 작품 속에 나타난다(정지영, 2008). 이러한 창작 작품은 작곡 단체의 연주회나 작곡가의 작품 발표회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작곡 단체에 소속되어있지 않은 작곡 전공자의 경우에는 작곡 콩쿠르나 공모전을 통해 작품 발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콩쿠르나 공모전에의 참가는 교육적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콩쿠르는 작곡이나 연주의 기능을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려 표창하는 제도로 대규모의 국제 콩쿠르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국가적 또는 지역적 수준의 콩쿠르가 있다. 전문 연주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경쟁 위주의 콩쿠르 이외에도 경쟁을 통하지 않고 참가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 심사위원들로부터 각자의 연주를 평가받는 콩쿠르가 있는데 이것은 페스티벌, 콘테스트 등으로 불리어진다. 콩쿠르는 음악적 재능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음악적 성장을 체크하고 격려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대회로, 콩쿠르의 참여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첫째,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교사가 아닌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그 동안 쌓아온 음악적 성취와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비슷한 수준의 참가자들이 모이는 환경을 통해 서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짐으로써 음악적으로 자극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둘째, 콩쿠르의 참가하는 것이 하나의 도전이 된다. 콩쿠르는 경쟁을 통해 우열을 가리게 되며, 콩쿠르에서 제시하는 순위나 상금, 특전 등은 참가자들에게 하나의 목표가 되어 참가자들이 목표를 향해 꾸준히 연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해 준다.

셋째, 콩쿠르는 좋은 연주의 경험이 될 수 있다. 콩쿠르는 비평적인 청중 앞에서 연주를 경험하게 되고, 참가자들은 극도의 압박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연주 경험은 성공적으로 연주를 끝마쳤을 경우 자신감과 성취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음악적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모든 참가자가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무대 위에서의 극도의 스트레스는 참가자들에게 심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콩쿠르에 참가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을 경우 실패의 확률은 더욱 커지게 된다. 콩쿠르는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탈락의 경험도 가져올 수 있으며, 탈락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콩쿠르에서의 실패는 좌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콩쿠르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진정한 교육적 의미를 갖고 참가자들에게 선의의 경쟁과 훌륭한 무대경험을 갖게 해주는 콩쿠르를 적절히 선택해 참가하여야 한다(성진희, 1988).

### C. 해외 작곡 콩쿠르의 사례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의 국제콩쿠르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국제대회 목록을 알 수 있다.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세계국제음악콩쿠르연맹(WFIMC)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수준 높은 음악인들의 참가가 예상되는 등 콩쿠르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콩쿠르에서 입상할 경우 남성 음악인들의 경우 병역을 공익근무로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내 병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으로 추천될 수 있는데 이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에게로 한정되어 있다. 세계국제음악콩쿠르연맹에 등재된 콩쿠르는 2009년 12월 기준 132여개로 남성 음악인들에게 병역 혜택을 줄 만큼 권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132개의 콩쿠르는 음악 전 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중 작곡 전공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콩쿠르는 10여개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의 <표 1>는 유네스코인정 국제음악경연대회의 목록 중 작곡 콩쿠르이거나 작곡 분야를 개최하고 있는 콩쿠르의 목록이다.

〈표 1〉 해외 작곡 콩쿠르 현황

국가	대회명	개최주기	홈페이지
러시아	Prokofiev 국제콩쿠르	1년	www.musicevents.ru
루마니아	George Enescu 국제콩쿠르	2년	www.festivalenescu.ro
벨기에	Reine Elisabeth de Belgique 국제음악콩쿠르	부정기	www.cmireb.be
스위스	Geneva 국제음악콩쿠르	1년	www.concoursgeneve.ch
스페인	Ciutat de Tarragona 국제작곡콩쿠르	1년	www.tarragona-premi-co mposicio.org
오스트리아	Mozart 국제콩쿠르	1년	www.moz.ac.at
이탈리아	Michele Pittaluga 국제 클래식기타 · 작곡콩쿠르	2년	www.pittaluga.org
	Petrassi 국제작곡콩쿠르	2년	www.fondazionetoscanini.it
	Santa Cecilia 국립음악원 국제콩쿠르	3년	www.santacecilia.it
	Gian Battista Viotti 국제음악콩쿠르	1년	www.concorsoviotti.it
프랑스	브장송 국제음악콩쿠르	1년	www.festival-besancon.com

〈표 1〉을 살펴보면 이탈리아는 4개의 콩쿠르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콩쿠르로 인정되어 개최되고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는 각 1개의 콩쿠르를 인정받고 있다. 모두 유럽지역에서 개최되는 콩쿠르이고, 미주지역이나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작곡 콩쿠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탈리아의 Santa Cecilia 국립음악원 국제콩쿠르는 개최 주기가 3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최 주기가 2년인 콩쿠르는 루마니아의 George Enescu 국제콩쿠르, 이탈리아의 Michele Pittaluga 국제 클래식기타 · 작곡콩쿠르와 Petrassi 국제작곡콩쿠르이다. 벨기에에서 열리는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의 작곡 부문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부문이 개최될 때 함께 개최되고 있다. 그 외 러

시아의 Prokofiev 국제콩쿠르, 스위스 Geneva 국제음악콩쿠르, 스페인 Ciutat de Tarragona 국제작곡콩쿠르, 오스트리아 Mozart 국제콩쿠르, 이탈리아 Gian Battista Viotti 국제음악콩쿠르, 프랑스 브장송 국제음악콩쿠르는 매년 개최되고 있다.

세계국제콩쿠르연맹에 지정된 콩쿠르 이외에도 세계에서는 다수의 국제 작곡 콩쿠르가 개최되고 있다. 세계현대음악제(ISCM) 작품 공모, 독일의 Pierrot Lunaire 국제 작곡 콩쿠르, 스위스 The Gianni Bergamo 클래식 뮤직 어워드 작곡 콩쿠르, 이탈리아 TEM(Taukay Edizioni Musicali) 국제 작곡 콩쿠르, 프랑스 Pablo Casals 페스티벌 국제 콩쿠르, 미국 The ALEA III 국제 작곡 콩쿠르와 MATA 페스티벌 작곡 콩쿠르 등이 그것이다.

### III. 연구의 결과

#### A. 국내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의 유형별 분류

##### 1. 유형별 분류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 작곡 캠프와 여름학교를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조사하였다. 2010년도에 개최되었거나 개최 예정인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 대해 콩쿠르, 공모전, 작곡 캠프 및 여름학교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콩쿠르의 개요 분석을 위해 콩쿠르(공모전)명, 개최취지, 개최주기 및 개최월, 참가자격, 제출 작품 규정, 심사 및 연주, 시상내용 및 특전의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각 주최기관이 고유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콩쿠르명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콩쿠르’와 ‘콩쿨’을 혼용하여 표기하였다. <표 2>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을 연구자가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 13개 작곡 콩쿠르와 7개의 작곡 공모전, 3개의 작곡 캠프 및 여름학교에 대해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다.

<표 2> 국내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 작곡캠프의 유형별 분류

콩쿠르	작곡 공모전	작곡캠프·여름학교
국제 윤이상 작곡상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작품 공모	창악회 여름 작곡 캠프
김순애 창작가곡 콩쿠르		
동아 음악콩쿠르	대구 작곡가협회 주최 대학생 작품 공모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범음악제 작품 공모	
영남 작곡 콩쿠르		
음악저널 전국 음악콩쿠르	서울창작음악제	향사회 여름 작곡 캠프



음연 작곡콩쿨	운지회 작품 공모	대관령 국제음악제 여름학교
중앙 음악콩쿠르		
창악회 작곡콩쿨	한국 창작 음악 합창제 작곡 공모	
카리엔 현대음악 작곡콩쿠르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	한민족 창작음악축전	
향사회 작곡콩쿨		
화천 비목 콩쿨		
13	7	3

## 2.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의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13개의 작곡 콩쿠르와 7개의 공모전에 대해 주최기관, 개최취지, 개최주기 및 개최일시, 참가자격, 제출 작품 규정, 심사 및 연주, 시상내용 및 특전의 7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의 개최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신인 작곡가의 발굴과 창작 작품의 발굴이다. 신인 작곡가의 발굴을 통해 그에게 연주의 기회를 주고 창작에 대한 성취동기를 주고자 하였으며, 창작 작품의 발굴은 창작 음악 보급과 창작 음악의 연주 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창악회,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쿠르, 향사회 작곡 콩쿠르,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작품공모, 범음악제의 작품공모는 개최취지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대구국제현대음악제와 범음악제의 작품공모는 음악제에서 당선작의 연주를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음을 보인다.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을 주최기관을 중심으로 분류해 본 결과, 주최기관은 신문 잡지사 등의 언론사, 음악협회 및 작곡단체와 연주단체, 문화재단, 음악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다음 <표 3>은 주최기관을 기준으로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을 분류한 것으로, 개최주기와 개최월을 함께 표기하였다.

<표 3> 주최기관별 작곡 콩쿠르 공모전 개최 현황

주최기관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명	주최사	개최주기/ 개최월
언론사 (신문· 잡지사)	동아 음악콩쿠르	동아일보	2년/ 9월
	음악저널 전국 음악콩쿠르	음악저널	1년/ 7월
	음연 작곡콩쿨	음연	1년/ 10월
	중앙 음악콩쿠르	중앙일보	1년/ 2월
음악협회 · 작곡단체 · 연주단체	김순애 창작가곡 콩쿠르	신음악학회	1년/ 9월
	영남 작곡콩쿠르	영남작곡가협회	1년/ 9월
	창악회 작곡콩쿨	창악회	1년/ 3월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	한국피아노두오협회	1년/ 9월
	향사회 작곡콩쿠르	향사회	1년/ 8월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공모	대구작곡가협회	1년/ 8월
	서울창작음악제	한국음악협회	1년/ 3월
	운지회 작품공모	운지회	1년/ 6월
	한민족창작음악축전	한국음악협회	1년/ 10월
	카리엔 현대음악 앙상블 작곡콩쿨	카리엔현대음악앙상블	1년/ 10월
문화재단	국제 윤이상 작곡상	윤이상평화재단	2년/ 6월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세일음악문화재단	1년/ 3월
	화천 비목 콩쿨	화천비목콩쿨조직위원회	1년/ 6월
음악제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작품공모	대구국제현대음악제	1년/ 1월
	범음악제 작품공모	범음악제 운영위원회	1년/ 6,7월
	한국 창작음악 합창제 작곡공모	대전시립합창단	1년/ 2월

언론사에서는 4개의 작곡 콩쿠르를 개최하고 있었으며, 2개의 신문사와 2개의 음악잡지사가 각각 동아 음악콩쿠르, 음악저널 전국 음악콩쿠르, 음연 작곡 콩쿨, 중앙 음악콩쿠르를 개최하고 있다.

음악협회 및 작곡단체, 연주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콩쿠르와 공모전은 10개로 가장 많은 콩쿠르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음악협회에서는 서울창작음악제와 한민족 창작음악 축전을 개최하고 있고, 연주단체인 한국 피아노두오 협회와 카리엔 현대음악 앙상블에서는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과 카리엔 현대음악 앙상블 작곡 콩쿨을 각각 개최하고 있다. 작곡가협회에서 주최하는 콩쿠르와 공모전

은 6개로 한국작곡가협회의 산하단체인 신음악학회, 창악회, 향사회, 운지회에서 각각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고, 지역 작곡가협회인 영남작곡가협회와 대구작곡가협회에서도 영남작곡콩쿠르와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공모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재단에서 개최하는 작곡 콩쿠르는 3개로 세일음악문화재단에서 세일 한국 가곡 콩쿠르를, 윤이상 평화재단에서 국제 윤이상 작곡상을 개최하고 있다. 화천 비목콩쿨을 개최하는 화천비목콩쿨 조직위원회는 그 성격이 문화재단의 성격에 가까웠기 때문에 문화재단으로 분류하였다.

음악제에서는 작곡 공모전 3개를 개최하고 있으며, 대구국제현대음악제에서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작품공모를, 범음악제 운영위원회에서 범음악제 작품 공모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 창작음악 합창제 작곡 공모의 주최기관은 대전시립합창단으로 그 성격이 연주단체에 가깝지만 개최명이 합창제 작곡공모로 음악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음악제로 분류하였다.

주최기관과 함께 개최주기와 개최월을 살펴본 결과 동아음악콩쿠르와 국제 윤이상 작곡상은 격년제로 개최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18개의 콩쿠르는 모두 1년을 주기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또한 콩쿠르와 공모전의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개최월을 분류한 결과 김순애 창작가곡 콩쿠르, 동아 음악콩쿠르, 영남 작곡 콩쿠르,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이 9월에 개최되고 있으며, 국제 윤이상 작곡상과 화천비목콩쿨, 범음악제 작품공모, 운지회 작품공모는 6월에 개최되고 있다. 3월과 10월에는 각각 3개의 콩쿠르와 공모전이 개최되고 있으며, 2월과 7월에는 2개, 8월에는 하나의 콩쿠르와 공모전이 개최되고 있다. 5월과 11월, 12월에는 콩쿠르나 공모전이 개최되지 않고 있다.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서 모집하는 작품은 실내악곡, 가곡 및 합창음악, 관현악 및 협주곡, 피아노곡, 복수 작품 모집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다음 <표 4>는 제출 작품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콩쿠르와 공모전의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으로 참가자격을 함께 명시하였다.

<표 4> 제출 작품 규정별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 개최 현황

제출 작품 규정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명	참가자격
실내악곡	동아음악콩쿠르	1992년 10월1일 이전 출생자, 해외 교포참가 가능*
	영남작곡콩쿠르	연령과 국가제한 없음
	중앙음악콩쿠르	1992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창악회 작곡콩쿨	-
	카리엔 현대음악 앙상블 작곡콩쿠르	대한민국 국적 만30세미만 작곡가
	향사회 작곡콩쿨	-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작품공모	만35세 이하의 석사과정까지의 학생, 만 30세 이하의 내외국인
	범음악제 작품공모	ISCM한국지부 회원, 1980년 이후 출생자
가곡· 합창음악	김순애 창작가곡 콩쿠르	197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세일한국가곡콩쿠르	1971년부터 1987년까지 출생한자, 국내외에서 작곡에 대한 교육을 받은자
	화천비목콩쿨	1992년 12월 이전 출생자, 국내외 대학생 및 일반인
	한국창작음악합창제	작곡가 및 작곡 전공 대학·대학원 재학생
관현악· 협주곡	국제 윤이상 작곡상	196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성별국적제한 없음*
	윤지회 작품공모	제한 없음
	한민족 창작음악축전	대한민국 국적의 1979년 10월 9일 이전출생자 또는 국외에 거주하는 한민족(국적 불문)*
피아노곡	음연작곡콩쿨	대학·대학원부 (대학졸업 3년이내 참가 가능)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	대학부 · 일반부
복수작품 모집	음악저널전국음악콩쿠르	대학생 및 일반(연령제한 없음)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공모	대구, 경북 소재하에 있는 대학생
	서울창작음악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은 2009년 기준으로 작성된 참가자격임.

실내악곡 부문을 제출 작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은 동아음악콩쿠르, 영남작곡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창악회 작곡콩쿨, 카리엔 현대음악앙상블 작곡콩쿨, 향사회 작곡 콩쿨,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작품공모, 범음악제 작품

공모의 총 8개로 가장 많은 콩쿠르와 공모전을 통해 모집되고 있다. 2인에서 9인까지의 실내악곡으로 악기편성과 연주 시간 등은 모두 다르게 나타났으며, 지정된 편성만을 모집하는 콩쿠르와 공모전도 있다.

가곡은 김순애 창작가곡 콩쿠르, 세일한국가곡 콩쿠르와 화천비목콩쿨에서 합창음악은 한국 창작음악 합창제에서 각각 제출 작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곡은 피아노 반주로만 이루어진 작품이어야 하고, 합창곡은 여성, 남성, 혼성 합창곡으로 반주부는 아카펠라나 피아노, 오르간, 다수의 악기 반주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현악곡은 가장 큰 편성으로서 국제 윤이상 작곡상과 한민족 창작음악 축전에서의 각각 3관 편성과 2관 편성 이상의 관현악곡 작품을 제출 작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주곡은 윤지희 작품공모에서 제출 작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3개의 콩쿠르와 공모전에서 비교적 큰 편성의 작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아노곡은 음연 작곡 콩쿨과 한국 피아노두오협회 작곡 콩쿨에서 제출 작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악저널 전국 음악콩쿨과 대구작곡가협회 주최 대학생 작품공모, 서울창작음악제에서는 복수의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음악저널 전국음악콩쿠르는 클래식과 교회음악, 예술가곡을, 대구작곡가협회 주최 대학생 작품공모에서는 가곡과 실내악을, 서울창작음악제에서는 가곡, 실내악, 합창, 관현악 부문을 제출작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콩쿠르와 공모전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영남작곡콩쿠르, 윤지희 작품공모,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 음악저널 전국 음악콩쿠르, 서울창작음악제 5개의 콩쿠르 및 공모전은 참가자격에 나이제한을 두지 않으며, 창악회 작곡콩쿨과 향사회 작곡 콩쿨은 참가자격을 명시하지 않는다. 나머지 콩쿠르와 공모전에서는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나이에 제한을 두어 대학생, 대학원생 및 젊은 작곡가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공모의 경우 지역적인 제한을 두어 대구 경북 소재하에 있는 대학생만이 참가할 수 있다.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서의 심사 유형을 보면, 심사는 악보심사와 연주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표 5>는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의 심사유형 및 시상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5> 국내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의 심사유형과 시상내용

구분	개최명	심사유형	시상내용 및 특전
콩 쿠 르	국제윤이상작곡상	본선:연주심사 악보심사, 연주심사	• 대상, 특별상, 특전: 대상수상작 연주기회 제공. • 본선 연주 단체 섭외.
	김순애창작가곡콩쿠르	악보심사, 연주심사	• 1,2,3등, 특전: 1등 수상작 연주기회 부여. • 본선심사 연주자 섭외 및 비용 작곡가 부담.
	동아음악콩쿠르	악보심사, 연주심사	• 1 2,3위. • 본선 연주자 섭외 및 비용 주최측 부담.
	세일한국가곡콩쿠르	악보심사, 연주심사	• 1,2,3등, 1~3위 입상곡 연주기회 부여. • 본선 연주자 본인섭외, 연주지원금 지급.
	영남작곡콩쿠르	악보심사, 연주심사	• 대상, 1,2,3등, 장려상. • 본선 연주자 협회 섭외, 연주료 일부 작곡가 부담, 나머지비용 협회지원.
	음악저널 전국음악콩쿠르	악보심사, 연주심사	• 1,2,3등, 장려상.
	음연작곡콩쿨	악보심사, 연주심사	• 1,2,3등, 특별상, 특전:1등 수상작 연주기회 부여. • 본선 연주비용 본인 부담.
	중앙음악콩쿠르	악보심사, 연주심사	• 1,2,3위. • 본선 연주자 섭외 및 비용 본인 부담.
	창악회작곡콩쿨	본선:연주심사	• 최우수상, 우수상2명, 특전: 최우수상 수상작 연주기회 부여. • 본선 연주자 섭외 및 진행 주최측 부담
	카리엔현대음악앙상블 작곡콩쿠르	본선:연주심사	• 최우수상, 우수상, 특전: 최우수상 수상작 연주기회 부여. • 본선 연주 카리엔 앙상블이 연주함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	악보심사, 연주심사	• 대상, 특상
	향사회작곡콩쿨	악보심사	•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특전: 대상 수상작 연주기회 부여
	화천비목콩쿨	악보심사, 오디오 실음심사 본선:연주심사	• 1, 2, 3, 4위, 특전: 1~3위 수상작 비목콩 쿨 성악 부문 지정곡으로 제시. • 본선 연주자,반주자 섭외 및 비용 본인부담

구분	개최명	심사유형	시상내용 및 특전
공 모 전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작품 공모	악보심사	• 당선작 음악제 기간 중 연주. 연주 섭외 및 비용 주최측 부담.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 공모	본선:연주심사	• 선정 작곡가에게 작곡료 지급, 특전: 선정작 연주기회 부여 • 연주 비용 본인부담
	범음악제 작품 공모	악보심사	• 당선작 음악제 기간 중 연주. 연주 섭외 및 비용 주최측 부담.
	서울창작음악제	악보심사	• 당선작 상장 및 부상 수여. • 당선작 협회 주최로 연주 발표함. • 4인까지 연주비 주최측이 지급하고 나머지 본인부담, 타악기 포함될 경우 악기대여료 본인부담.
	윤지희 작품공모	악보심사	• 당선작에 한해 연주됨.
	한국창작음악합창제 작곡 공모	악보심사, 연주심사	• 입상작 작곡료 지급. • 입상작 창작음악합창제에서 연주됨. • 당선작 상장 및 부상 수여.
	한민족 창작음악축전	예선:악보심사 본선:연주심사	• 당선작 연주 섭외, 연주회 소요경비 주최측 부담, 특수악기, 타악기 대여료 본인부담.

악보심사는 주로 예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선의 악보심사를 거쳐 본선에  
서는 연주심사가 이루어진다. 국제 윤이상 작곡상과 창악회 작곡콩쿨, 카리엔 현  
대음악 앙상블 작곡 콩쿨,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공모는 본선에서 연주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예선의 심사과정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연주  
심사시에 연주자의 섭외와 연주비용을 작곡가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콩쿠르와 공  
모전은 김순애 창작 가곡 콩쿠르, 음악저널 전국 음악 콩쿠르, 음연 작곡 콩쿨,  
중앙 음악콩쿠르,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 화천비목콩쿨,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 공모의 7개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13개의 콩쿠르와 공모전에서  
는 연주자 섭외와 연주 비용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주최측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상내용은 1, 2, 3위 또는 대상, 특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시상되고 있  
다. 그러나 동일한 최고상의 경우라도 콩쿠르와 공모전에 따라 각기 1위, 대상,  
최우수상 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수상내용과 함께 순위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 최  
고 액수의 상금이 수여되는 콩쿠르는 국제 윤이상 작곡상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미화 2만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동아음악콩쿠르, 영남음악콩쿠르, 음악저

닐전국음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를 제외한 16개의 콩쿠르와 공모전에서는, 입상자에 한하여 특전으로 작품 연주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주 기회는 주최측의 정기 연주회 또는 음악제 기간중에 주어지며, 국제 윤이상 작곡상과 한민족 창작음악축전에서는 대상 수상작과 당선작의 연주는 연주단체를 섭외하여 발표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B. 국내 작곡 콩쿠르 및 공모전의 유형별 현황

### 1. 작곡 콩쿠르

작곡 콩쿠르로는 음악 콩쿠르 내 작곡 부문을 개최하고 있는 콩쿠르와 작곡만을 위한 콩쿠르가 있다. 먼저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작곡 콩쿠르의 현황을 살펴보면 17개의 작곡 콩쿠르가 개최되고 있다.

<표 6> 국내 작곡 콩쿠르 현황

구분	개최명	주최	비고
콩쿠르	국제윤이상작곡상	윤이상평화재단	관현악곡, 격년제
	김순애창작가곡콩쿠르	신음악학회	가곡
	동아국악콩쿠르	동아일보	국악창작곡
	동아음악콩쿠르	동아일보	실내악곡, 격년제
	서울국제작곡콩쿠르	21세기악회	실내악곡, 격년제
	세일한국가곡콩쿠르	세일음악문화재단	가곡
	영남작곡콩쿠르	영남작곡가협회	실내악곡
	음악저널전국음악콩쿠르	음악저널	클래식, 교회음악, 예술가곡
	음연작곡콩쿨	음연	피아노독주곡
	중앙음악콩쿠르	중앙일보	실내악곡
	창악회작곡콩쿨	창악회	실내악곡
	카리엔현대음악작곡콩쿠르	카리엔현대음악앙상블	실내악곡



한국피아노두오작곡콩쿨	한국피아노두오협회	피아노곡
향사회작곡콩쿨	향사회	실내악곡
화천비목콩쿨	비목콩쿨조직위원회	가곡
ACL신인작곡콩쿨	아시아작곡연맹	실내악곡
CBS창작가곡콩쿨	CBS	가곡

<표 6>을 살펴보면 참가 분야가 창작국악곡인 동아 국악콩쿠르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창작 국악과 전자음악 분야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아시아작곡연맹에서 주최하는 ACL신인 작곡콩쿨과 CBS에서 주최하는 CBS 창작가곡콩쿨은 더 이상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작곡 콩쿠르로는 ‘김순애 창작 가곡 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영남작곡콩쿠르’, ‘국제 윤이상 작곡상’, ‘음악저널 전국 음악콩쿠르’, ‘음연 작곡콩쿨’, ‘중앙음악콩쿠르’, ‘창악회 작곡콩쿨’, ‘카리엔 현대음악 작곡콩쿠르’, ‘한국피아노두오 작곡콩쿨’, ‘향사회 작곡콩쿨’, ‘화천비목콩쿨’의 총 13개이다.

#### 가. 국제 윤이상 작곡상

국제 윤이상 작곡상은 윤이상평화재단, 국제윤이상협회와 중앙일보가 주최하며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7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젊은 작곡가 양성과 동서양 음악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작곡 콩쿠르의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자격은 2009년 기준으로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성별과 국적 제한이 없다. 2009년에는 23개국에서 70여작품이 출품되었다. 작품제출규정은 3관편성의 오케스트라로 다른 작곡 콩쿠르에 비해 편성이 큰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심사는 본선 진출작에 한해 윤이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공개 심사로 이루어진다. 심사위원단은 다국적으로 구성된 5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선 연주가 끝난 후 시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대상 수상작은 세계 각국 음악축제나 연주 단체의 연주기회가 제공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표 7> 국제 윤이상 작곡상 요강

콩쿠르명	국제 윤이상 작곡상
주최기관	윤이상평화재단 · 국제윤이상협회 · 중앙일보
개최취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제적 음악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국제윤이상작곡상>으로 명명된 이 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격년제로 개최되며 윤이상의 명성을 중심으로 젊은 작곡가를 양성하고 동서양 음악교류의 확대하면서 세계 각국 음악인들에게 열려있는 작곡 콩쿠르의 형태로 진행됨.
개최주기 및 개최월	격년제 / ·신청마감: 6월 ·본선진출자 발표: 7월 ·본선: 9월(연주회 및 시상식)
참가자격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성별, 국적 제한 없음)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 일반적인 3관 편성 오케스트라</li> <li>▪ 연주시간: 10~15분 내외</li> <li>▪ 미발표신작에 한함</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주: 원주시립교향악단</li> <li>▪ 심사위원: 주최측 위촉 심사위원 5인</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미화 20,000 달러</li> <li>▪ 특별상: 미화 10,000 달러</li> <li>▪ 특전: 대상 수상작은 세계 각국 음악축제나 연주단체의 연주회 제공</li> <li>▪ 본선 진출자는 본선연주 및 시상식에 참석해야 하며, 이에 따른 경비(교통, 숙식)는 본 재단이 부여함.</li> </ul>

\*2009년 기준

#### 나. 김순애 창작 가곡 콩쿠르

김순애 창작 가곡 콩쿠르는 창작 가곡을 위한 콩쿠르로 한국 최초의 여성 작곡가인 김순애 교수를 기리고 한국 가곡의 진흥을 목적으로 신음악학회에서 주최하는 콩쿠르이다. 신음악학회는 음악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뜻을 같이하는 작곡가들이 상호간의 교류와 활성화하여 학문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결성되었으며, 학

술연구와 작곡 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콩쿠르 참가 자격은 2009년 기준으로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들과 젊은 작곡가들이 참가할 수 있다.

심사는 주최측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예선에서 악보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들이 본선에서의 연주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결정된다. 본선은 공개심사로 이루어지며 연주에 따른 연주자 선정과 비용은 작곡자가 부담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가 수여되며 1등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신음악학회 정기연주회에서 연주기회가 부여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표 8> 김순애 창작 가곡 콩쿠르 요강

콩쿠르명	김순애 창작 가곡 콩쿠르
주최기관	신음악학회
개최취지	한국 최초의 여성 작곡가로서 주옥같은 애창가곡을 남기신 고 김순애 교수를 기리고 한국 가곡의 진흥에 일조하고자 함.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 ·신청마감: 9월 ·예선: 10월 ·본선: 11월
참가자격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제출작품규정	신청자 본인의 초연 창작 가곡으로 한국 등단 시인의 시에 한함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최측 위촉 위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함</li> <li>▪ 예선: 악보심사</li> <li>▪ 본선: 연주심사</li> <li>▪ 본선에서의 연주심사는 공개로 진행함</li> <li>▪ 본선에서의 연주자 선정 및 연주 비용은 작곡자 본인이 부담함</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 3등 각 상장 및 상패</li> <li>▪ 특전: 1등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신음악학회 정기연주회에서의 연주기회가 부여됨</li> </ul>

\*2009년 기준

## 다. 동아음악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는 동아일보의 주최로 1961년 창설되어 작곡, 성악, 기악 등 15개 부문에 걸쳐 재능 있는 신인들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음악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작곡 부문은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만 17세 이상인 자로 두고 있다. 제출작품 규정은 콩쿠르가 개최될 때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유 형식의 실내악 작품이다.

심사는 예선에서는 악보심사로 이루어지며 본선에서 연주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본선에서의 연주는 주최측이 선정하며 그 연주료도 주최측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자는 연주 심사시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다. 본선 심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표 9> 동아음악콩쿠르 요강

콩쿠르명	동아음악콩쿠르
주최기관	동아일보
개최취지	국내 음악계 최고 권위의 등용문으로 재능 있는 신인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음악 발전 이끄는 데 있음.
개최주기 및 개최월	격년제 / ·신청마감: 9월 ·예선: 9월 ·본선: 10월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17세 이상인 자. (1992년 10월 1일 이전 출생자. 해외교포도 참가할 수 있음)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 플루트, 클라리넷(B♭), 호른, 바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피아노(콘서트 그랜드 피아노)를 위한 9중주</li> <li>▪ 형식 자유</li> <li>▪ 연주시간: 9~10분, 악보에 연주 소요시간을 명기할 것</li> <li>▪ 속도는 메트로놈으로 표기할 것</li> <li>▪ 응모작품은 미발표 신작에 한함, 작곡자 자필 원보 및 사보</li> <li>▪ 작곡자의 이름과 작품명은 악보 첫 페이지에만 기입하고 작품설명서는 첨부하지 말 것.</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선: 악보심사</li> <li>▪ 본선: 연주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선시 연주는 주최측에서 선정하며, 연주료도 주최측이 부담함. 단, 연주에 필요한 파트보와 총보는 작곡자가 책임짐.</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위: 200만원</li> <li>▪ 2위: 150만원</li> <li>▪ 3위: 100만원</li> </ul>

\*2009년 기준

## 라.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는 세일음악문화재단의 주최로 우리의 정서가 담긴 한국 가곡의 우수한 예술성과 독창성을 개발하고 그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현대적인 감각과 예술성이 담긴 한국 가곡 작곡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 가곡을 발굴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을 둔다. 참가자격은 국내외에서 작곡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2009년을 기준으로 1971년부터 1987년까지의 출생자이다.

예선에서는 창작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본선에서는 주최측이 지정한 시에 대해 2개월 안에 새로이 작곡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타 콩쿠르와의 다른점이라 할 수 있다. 예선은 악보심사로 이루어지며, 본선은 악보심사와 연주심사를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본선에서의 심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연주자는 작곡자가 섭외하여야 하지만 주최측에서 연주지원금이 지급된다. 작곡 부문 1, 2, 3위 수상자는 상금과 함께 ‘세일 한국 가곡의 밤’에서 국내성악가에 의해 연주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표 10>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요강

콩쿠르명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주최기관	세일음악문화재단
개최취지	우리의 정서가 담긴 한국 가곡의 우수한 예술성과 독창성을 개발하고 그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한국가곡의 콩쿠르를 통하여 한국 성악계를 이어갈 인재를 발굴하며 또한 현대적인 감각과 예술성이 담긴 한국 가곡 작곡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국 가곡을 발굴하는데 그 의의와 목적을 둬.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 ·신청마감: 3월 ·예선: 3월 ·본선: 5월 ·악보 심사 및 연주 심사: 6월
참가자격	국내외에서 작곡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1971년부터 1987년까지 출생한자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선: 현존하는 시인에 의해 한글로 창작된 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작곡된 가곡 1곡</li> <li>▪ 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콩쿠르 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5편에 시에 붙여진 가곡 1곡</li> <li>·악보 및 연주심사</li> </ul> </li> <li>▪ 피아노 반주에 위한 가곡이어야 함.</li> <li>▪ 미발표 신작에 한함.</li> <li>▪ 본선을 위한 지정시는 예선결과와 함께 발표함.</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선: 악보 심사</li> <li>▪ 본선: 악보심사, 연주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선 결과 발표일에 발표되는 5편의 지정시 중 택일하여 콩쿠르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날짜까지 새롭게 작곡하여 악보로 제출.</li> <li>· 본선 당일 참가자가 직접 선정한 연주자의 연주와 함께 악보 심사를 병행함.</li> </ul> </li> <li>▪ 작곡 부문 본선 진출자에게는 30만원의 연주 지원금이 본선 연주회 당일에 지급됨.</li> <li>▪ 본선은 객석을 개방하여 연주회 형식으로 진행, 프로그램 구성은 콩쿠르 위원회와 심사 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함.</li> <li>▪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은 본선 당일 본선 심사가 발표된 직후에 거행, 모든 수상자는 시상식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수상은 직접 하도록 함.</li> <li>▪ 수상자 선정에 관한 모든 권한은 심사위원회에 있으며 콩쿠르 참가자는 심사 결과에 승복하여야 함.</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등 상금 : 800만원</li> <li>▪ 2등 상금 : 500만원</li> <li>▪ 3등 상금 : 200만원</li> <li>▪ 작곡 부문 1, 2, 3위 입상곡은 ‘세일 한국 가곡의 밤’에서 국내성 악가에 의해 연주됨.</li> </ul>

#### 마. 영남 작곡콩쿠르

영남 작곡콩쿠르는 영남작곡가협회 주최로 개최된다. 영남작곡가협회는 영남지역 작곡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음악에 대한 창작활동과 그에 따르는 이론연구를 통해 우리 민족음악 정립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조직된 작곡가 단체로 작곡발표회, 세미나, 작곡콩쿠르, 현대음악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작곡가들을 위한 기반 마련과 숨겨진 인재를 발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참가자격에 있어 연령과 국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작품 제출 요강은 매년 공지되고 있다. 2009년도 기준에서는 12분 이내의 현악4중주 작품으로 미발표 신작에 한한다.

본선에서의 연주심사는 영남국제현대음악제 기간 중에 이루어지며 연주단체는 주최측에서 섭외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작곡자는 연주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협회에서 지원한다.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주어지며, 작품 수준에 따라서는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다.

<표 11> 영남 작곡콩쿠르 요강

콩쿠르명	영남 작곡콩쿠르
주최기관	영남작곡가협회
개최취지	새로운 작곡가들을 위한 기반 마련과 숨겨진 인재 발굴에움.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 ·신청마감: 9월 ·예선: 마감 15일내 개별통보 및 협회 홈페이지 공지 ·본선: 11월
참가자격	연령과 국가 제한 없음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 String Quartet(현악4중주)을 위한 작품 (정규 현악4중주 편성: 1st Violin, 2nd Violin, Viola, V.Cello)</li> <li>▪ 형식 자유</li> <li>▪ 연주시간: 12분 이내</li> <li>▪ 미발표 신작에 한하며, 타 연주 및 콩쿠르에 연주나 시상된 바 없는 작품이어야 함</li> <li>▪ 악보에는 제목만 표기</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선 연주단체는 협회에서 섭외하며, 본선진출자는 ‘현악4중주단’의 연주료 중 일부를 본 협회에 제출하며, 나머지 연주 비용은 본 협회에서 지원할 예정임</li> <li>▪ 영남국제현대음악제 기간중 연주를 통하여 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위원은 사계권위자로서 심사직전 결정, 발표할 것임</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100만원</li> <li>▪ 1등 50만원</li> <li>▪ 2등 30만원</li> <li>▪ 3등 20만원</li> <li>▪ 장려상</li> <li>▪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가 모두 주어짐</li> <li>▪ 작품수준에 따라 당선작이 없을 수도 있음</li> </ul>

\*2009년 기준

#### 바. 음악저널 전국 음악콩쿠르

음악저널 전국 음악콩쿠르는 음악 잡지사인 음악저널의 주최로 개최되며, 초·중·고·대학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아노와 피아노 반주, 현악, 관악 작곡부문이 개최된다.

개최취지는 기량과 음악성이 고루 갖추어진 음악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있으며, 작곡부문의 참가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참가 부문은 클래식, 교회음악, 예술가곡 중 참가할 수 있으며, 심사는 예선 통과된 곡에 한해 본선 심사에서 연주심사로 이루어진다. 시상은 1, 2, 3등과 장려상에게 상금이 주어진다.

#### <표 12> 음악저널 전국 음악콩쿠르 요약

콩쿠르명	음악저널 전국 음악콩쿠르
주최기관	음악저널
개최취지	음악저널은 기량과 음악성이 고루 갖추어진 음악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사(社)의 명예를 걸고 실력이 정직하게 통하는 콩쿠르를 제정. 음악경연대회도 하나의 교육이며 음악교육의 양심으로 음악 재원을 선발, 한국 음악계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 데뷔시키는 한편, 음악능력에 따라 CD 등을 출판,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 ·신청마감, 예선 및 본선: 7월



참가자격	대학생 및 일반 (작곡 일반부는 연령제한 없음)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래식: 주어진 동기로 현악기 또는 관악기와 피아노를 위한 2중주곡 쓰기</li> <li>▪ 교회음악: 자유 성구에 의한 선율 짓기</li> <li>▪ 예술가곡: 참가자 본인이 선택한 노래시에 의한 예술가곡 작곡 (피아노 반주부 포함)</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래식·교회음악 본선: 예선 통과된 곡을 연주로 심사</li> <li>▪ 본선: 음악저널 콩쿠르 본선 경연일정 중(2010년 7월 말)</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상: 1,2,3등, 장려상 및 상금</li> </ul>

#### 사. 음연 작곡콩쿨

음연 작곡콩쿨은 음악잡지사인 음연의 주최로 개최되는 콩쿠르로 창작음악의 활성화와 젊은 작곡가 발굴을 통해 창작음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다. 참가는 대학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대 피아노 음악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심사는 주최측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담당하며, 예선의 악보심사를 거쳐 본선에서는 연주심사로 이루어지는데, 본선에서의 연주심사시 연주자 비용은 작곡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발된 1, 2, 3등에게는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된다. 타 콩쿠르와는 다르게 작곡자의 작품을 가장 잘 표현한 연주자에게도 특별상이 부여된다. 또한 1등 수상자는 음연에서 주최하는 젊은이의 음악제에서 발표기회의 특전이 주어진다.

<표 13> 음연 작곡콩쿨 요약

콩쿠르명	음연 작곡콩쿨
주최기관	(주)음연
개최취지	(주)음연에서 주최하는 음연 작곡 콩쿨은 창작 음악의 활성화와 더불어 독창적이며 예술성이 뛰어난 창작품을 선정, 소개함으로써 재능 있는 젊은 작곡가를 발굴함과 동시에 한국 창작 음악의 발전을 도모함. 음연 작곡 콩쿨은 국내 최고의 피아노 음악 잡지인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프로젝트로 기획되었으며, 현대 피아노 음악 작품만을 공모함으로써 피아노 음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자 함.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신청마감: 10월 ·예선: 10월 ·본선: 11월
참가자격	대학 · 대학원부 대학 졸업 후 3년 이내의 작곡가도 출품 가능함.(졸업증명서제출)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iano 독주곡</li> <li>▪ 연주시간: 10분 내외</li> <li>▪ 신청자 본인의 초연 창작곡으로, 다른 콩쿨에 이미 제출되었던 곡 또는 콩쿨 최종결과 공지 전 출판, 발표된 작품은 제외됨.</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 마감일 끝난 후, (주)음연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담당함</li> <li>▪ 예선: 악보심사</li> <li>▪ 본선: 연주심사 -본선 시기와 장소는 추후 공고, 공개적으로 진행됨.</li> <li>▪ 연주자 비용은 작곡자 본인이 부담함.</li> <li>▪ 연주 전, 본인 작품에 관해 설명 시간 있음.</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상: 1등, 2등, 3등 (상장 및 부상)</li> <li>▪ 특별상: 음연 작곡 콩쿨 본선에서 작곡가의 의도를 제일 잘 표현한 피아니스트에게 수여하는 상</li> <li>▪ 입상자 전원은 &lt;피아노 음악&gt;에 기사로 게재됨.</li> <li>▪ 대학 · 대학원부 1등 수상자는 월간 &lt;피아노 음악&gt;에 수상 작품에 관한 기사가 게재됨. 또한 (주)음연에서 주최하는 &lt;젊은이의 음악제&gt;에서 당선작 발표 기회가 부여됨.</li> </ul>

#### 아. 중앙음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는 중앙일보 주최로 1975년 제정되었으며,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명정대한 운영과 심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악기와 성악, 작곡 부문이 개최되고 있으며, 작곡부문의 참가는 만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작품제출 규정은 8~10분 이내의 실내악곡으로 편성은 매년 달라지며 콩쿠르 전에 공지된다. 악보제출시에는 자필 사보에 의한 악보만을 제출하여야 하며, 작곡기법, 작곡

의도, 악기취급법의 내용인 담긴 작품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선 심사는 연주심사로 이루어지며 연주자는 작곡자가 섭외하여야 한다.

<표 14> 중앙음악콩쿠르 요강

콩쿠르명	중앙음악콩쿠르
주최기관	중앙일보
개최취지	1975년 중앙일보 창간 10주년을 기념하여 제정된 중앙음악콩쿠르는 33회 역사를 거치며 성장하여 대회 권위와 참가자 규모, 입상자 수준에서 명실공히 최고의 음악콩쿠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언론사로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명과 책임감으로 공명정대한 운영과 심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뢰를 더하고 있음.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신청마감: 2010년 2월 ·1, 2차 예선 및 본선: 3월
참가자격	만 18세 이상 (~92.2.28)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 피아노, 바이올린2, 비올라1, 첼로1로 구성된 5중주 곡</li> <li>▪ 연주시간: 8분~10분</li> <li>▪ 작곡자 자필 사보에 의한 악보만 접수</li> <li>▪ 악보 및 작품설명서 제출, 작품설명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순서대로 들어가야 함.(A4 3매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재 및 악기취급법, 작곡기법, 작곡의도</li> <li>-작품설명서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li> <li>-작품설명회에서 작품설명서 이외의 자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작품설명서는 작품설명회 전까지 다시 제출하여도 무방함</li> </ul> </li> <li>▪ 본선 연주에 필요한 모든 악보는 작곡자가 준비</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곡부문의 본선연주를 위한 연주자는 본인이 섭외하여야 하며, 연주에 필요한 악기 중 피아노를 제외한 기타 악기는 각자 준비하여야 함.</li> <li>▪ 피아노는 주최측에서 제공하나, 악기에 무리가 가는 연주일 경우, 연주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함.</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상: 1, 2, 3위</li> </ul>

## 자. 창악회 작곡콩쿨

창악회 작곡콩쿨은 정서적인 면에 아름다움의 가치를 두고 그 순수함에 뜻을 같이하는 작곡가들의 단체인 창악회의 주최로 1978년 개최되었다. 한국 창작음악의 미래를 담당할 신진작곡가를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현재 한국 창작음악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수의 음악가들을 배출하고 있다. 입상자들에게는 창악회 준회원의 자격과 함께 창작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젊은 작곡학도들에게 창작에 대한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신진 작곡가를 가늠하고 지원하는 장이 되고 있다. 5인 이내의 실내악곡을 모집하고 있으며, 예선의 악보심사를 거쳐 본선에서 연주심사로 이루어지는데 본선 진출자의 연주는 주최측에서 섭외하여 진행된다. 시상은 최우수상 한명과 우수상 두명에게 주어지며, 모든 입상자들은 창악회의 준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창악회 정기연주회에서 발표되는 특전이 부여된다.

<표 15> 창악회 작곡콩쿨 요강

콩쿠르명	창악회 작곡콩쿨
주최기관	창악회
개최취지	한국 창작 음악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수의 음악가들을 배출하고 입상자들에게는 준회원의 자격과 함께 창작활동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젊은 작곡학도들에게 창작에 대한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신진 작곡가를 가늠하고 지원하는데 있음.
개최주기 및 개최일시	1년 / ·신청마감: 3월
참가자격	—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바이올린1, 2, 비올라, 첼로, 피아노중 5인 이내 실내악곡</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선: 공개심사</li> <li>▪ 연주: 본선 진출자 연주는 창악회 주최측에서 섭외 및 진행</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2명 각30만원</li> <li>▪ 특전: 최우수상 수상작은 창악회 정기연주회 발표</li> <li>▪ 모든 입상자들은 창악회 준회원 자격부여</li> </ul>

### 차. 카리엔 현대음악 작곡콩쿠르

카리엔 현대음악 작곡콩쿠르는 현대음악 연주단체인 카리엔 현대음악 앙상블의 주최로 개최되는 콩쿠르이다. 독창성 있는 창작 음악 보급을 위해 젊은 작곡가를 대상으로 콩쿠르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30세 미만의 모든 작곡가이며, 3중주 이상의 실내악곡을 모집한다. 본선에서의 심사는 공개심사로 카리엔 앙상블의 연주로 이루어진다. 시상은 최우수상과 우수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카리엔 현대음악 앙상블 정기연주회에서 연주기회의 특전이 부여된다.

<표 16> 카리엔 현대음악 작곡콩쿠르 요강

콩쿠르명	카리엔 현대음악 작곡콩쿠르
주최기관	카리엔 현대음악 앙상블
개최취지	카리엔 현대음악앙상블에서는 독창성 있는 창작 음악 보급을 위해 젊은 작곡가를 대상으로 카리엔 현대음악 작곡 콩쿠르를 개최함.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 ·신청마감: 10월 ·예선 및 본선: 11월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만30세 미만 모든 작곡가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 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피아노</li> <li>▪ 형식: 3중주 이상의 순수창작곡</li> <li>▪ 연주시간: 5~12분 이내</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선: 공개심사(장소와 날짜는 추후 공지함)</li> <li>▪ 연주: 카리엔 앙상블</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30만원(1명)</li> <li>▪ 우수상: 상장 및 상금 20만원(1명)</li> <li>▪ 특전: 최우수상 수상자는 카리엔 현대음악 앙상블 정기연주회 연주기회 부여</li> </ul>

### 카.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 콩쿨은 피아노 음악의 한 장르인 피아노 두오의 보급과 광범위한 레퍼토리 연구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음악 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 피아노두오 협회에서 개최하는 작곡 콩쿠르이다. 대학부와 일반부의 참가가 가능하며, 낭만시대 스타일의 2 Piano 4 Hands의 작품을 모집한다. 예선의 악보심사 통과자에 한해 본선에서는 연주심사로 이루어진다. 대상과 특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되며, 대상수상자에게는 한국 피아노두오 협회의 특별연주회에서 연주기회의 특전이 주어진다.

<표 17>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 요강

콩쿠르명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
주최기관	한국피아노두오협회
개최취지	-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신청마감: 9월
참가자격	대학부, 일반부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 2 Piano 4 Hands</li> <li>▪ 형식: 낭만시대 스타일에 관계된 곡</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보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연주함</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특상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수여함</li> <li>▪ 특전: 작곡부문 대상은 한국 피아노두오 협회 주최 특별연주회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li> </ul>

### 타. 향사회 작곡콩쿨

향사회 작곡콩쿨은 부산을 대표하는 현대음악작곡가협회인 향사회의 주최로 개최되는 작곡콩쿠르이다. 2008년부터 콩쿠르를 개최하고 있으며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작품 모집은 실내악곡으로 악기 편성은 매년 공고된다. 심사는 악보심사로 이루어지며, 협회 이사진 2명과 외부 위촉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가

이루어진다. 시상내용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수상되며, 대상수상 작품은 향사회 정기 발표회에서 작품이 연주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표 18> 향사회 작곡콩쿨 요강

콩쿠르명	향사회 작곡콩쿨
주최기관	향사회
개최취지	-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신청마감: 8월
참가자격	제한 없음(외국인도 가능)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 플룻, 클라리넷, 호른,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가야금, 대금 중 3-5명 이내 실내악곡</li> <li>▪ 연주시간: 5분-10분</li> <li>▪ 미발표 신작에 한함.</li> <li>▪ 악보에는 제목만 기입하고 익명제출</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 악보심사</li> <li>▪ 심사위원은 협회 이사진 중 2명,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50만원</li> <li>▪ 최우수상 30만원</li> <li>▪ 우수상 20만원</li> <li>▪ 장려상 10만원</li> <li>▪ 특전: 대상수상 작품은 10월 향사회 정기 발표회 연주 (협회에서 연주료 전액부담)</li> <li>▪ 작품수준에 따라 당선작이 없을 수도 있음.</li> </ul>

#### 파. 화천비목콩쿨

화천비목콩쿨은 우리민족의 정서와 애환을 담은 노래의 경선을 통해 독창적이고 우수한 인재와 작품의 발굴을 통해 그 예술혼을 널리 펼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18세 이상의 국내외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창작 가곡 작품을 모집한다. 1차예선에서는 주최측에서 제시한 5편의 시 중 한 작품을 택하여 작곡한 작품을 제출하고, 2차 예선에서는 1차 통과자에 한해 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차예선은 악보심사로 이루어지며, 2차예선은 음원파일을 통한 오디오 심사로 이루어진다. 본선에서의 심사는 연주심사이며 작곡자가 연주자와 반주자를 섭외하여야 한다. 시상은 1위부터 4위까지이며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1, 2, 3위로 입상한 작품은 비목콩쿨의 성악부문 지정곡으로 제시된다.

<표 19> 화천비목콩쿨 요강

콩쿠르명	화천비목콩쿨
주최기관	비목콩쿨 조직위원회
개최취지	화천비목콩쿠르는 우리민족의 정서와 애환을 담은 노래의 경선(성악/창작)을 통해 독창적이고 우수한 인재와 작품의 발굴을 통해 그 예술혼을 널리 펼치고자하는데 그 의의를 둠.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 ·신청마감: 6월 ·예선: 6월 ·본선: 9월
참가자격	1992년 12월 이전에 출생한 국내·외 대학생 및 일반인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예선: 제시된 詩 5편중 택1 작곡 -노랫말과 조화를 이룬 예술가곡으로 널리 애창될수 있어야 한다.(가락 + 피아노) -PDF 파일로 첨부</li> <li>▪ 2차예선: 1차심사 통과자에 한해 음원제출</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예선: 악보심사</li> <li>▪ 2차예선: 음원파일을 통한 오디오 심사</li> <li>▪ 본선: 실연심사(연주자, 반주자 동반)</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위: 강원도지사상(300만원)</li> <li>▪ 2위: 화천군수상(150만원)</li> <li>▪ 3위: 화천군의장상(100만원)</li> <li>▪ 4위: 화천문화원장상(50만원)</li> <li>▪ 특전: 1위~3위 입상곡은 본 비목콩쿨 성악부문 지정곡으로 제시, 보급 및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li> </ul>

<표 7> ~ <표 19>를 살펴보면 작곡 콩쿠르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동아 음악콩쿠르와 국제 윤이상 작곡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쿠르의 개최일시를 살펴보면 신청 마감일시를 기준으로 김순애 창작가곡



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 영남작곡콩쿠르,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 4개 콩쿠르가 모두 9월에 개최되어, 일년 중 9월에 가장 많은 콩쿠르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에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와 창악회 작곡콩쿨, 6월에 국제 윤이상 작곡상과 화천비목콩쿨, 10월에 음연 작곡콩쿨과 카리엔 현대음악 작곡콩쿠르가 각각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월, 7월, 8월에 각각 분산되어 개최되고 있다.

콩쿠르의 제출작품 규정을 살펴보면, 김순애 창작가곡 콩쿠르와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화천비목콩쿨이 가곡 부문을 지정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연 작곡콩쿨과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에서 피아노 부문의 작품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윤이상 작곡상은 관현악 작품을 규정작품으로 하고 있다. 동아음악콩쿠르, 영남작곡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창악회 작곡콩쿨, 카리엔 현대음악 작곡콩쿠르, 향사회 작곡콩쿨의 6개의 콩쿠르에서 실내악 부문을 규정 작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내용에 있어 대부분의 콩쿠르에서 악보심사와 연주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사회 작곡콩쿨을 제외한 12개의 콩쿠르는 예선에서 악보심사를 거쳐 본선에서는 연주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주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선 연주심사시 연주자의 섭외와 연주비용을 작곡가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콩쿠르는 김순애 창작가곡 콩쿠르, 음연작곡콩쿨, 중앙음악콩쿠르, 한국피아노두오 작곡콩쿨, 화천비목콩쿨 6개로 나타났으며, 향사회 작곡콩쿨을 제외한 콩쿠르에서는 연주자 섭외 및 연주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아음악콩쿠르와 중앙음악콩쿠르의 경우 공정하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심사내용과 심사평을 공개하고 있다.

시상내역에 있어 일반적으로 1위 또는 대상, 최우수상이 최고상으로 나타났으며, 상금이 없거나 구체적인 상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콩쿠르도 5개로 파악되었다. 특히 국제 윤이상 작곡상은 대상 수상자에게 미화 2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여 가장 최고액수의 상금이 수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아음악콩쿨, 영남작곡콩쿠르, 음악저널 전국 음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화천비목콩쿨 이외에는 특전으로 대상 또는 상위 입상자에게 연주회에서의 연주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비목콩쿨의 경우에는 1~3위의 입상곡에 한하여 비목콩쿨의 성악 부문 지정곡으로 제시하여 창작가곡의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특전으로 부여한다.

## 2. 작곡 공모전

작곡 공모전은 음악협회에서의 작품 공모 또는 현대음악제에서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공모전은 대부분 당선작에 대해 연주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10개의 작곡 공모전이 개최되고 있다. <표 20>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작곡 공모전의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20> 국내 작곡 공모전 현황

구분	공모전	주최	비고
작곡 공모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작품 공모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실내악곡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 공모	대구작곡가협회	가곡, 실내악곡
	범음악제 작품 공모	범음악제운영위원회	실내악곡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작품 공모	한국전자음악협회	전자음악
	서울창작음악제	한국음악협회	가곡, 실내악, 합창, 관현악곡
	운지회 작품공모	운지회	협주곡
	한국창작음악합창제 작곡 공모	대전시립합창단	합창곡
	한민족 창작음악축전	한국음악협회	관현악곡
	Fest-m 작품공모	한국전자음악협회	전자음악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창작곡

본 연구에서는 창작 국악과 전자음악 분야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21C한국음악프로젝트와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 작품공모, Fest-m 작품공모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작곡 공모전은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작품공모’,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공모’, ‘범음악제 작품공모’, ‘서울창작음악제’, ‘운지회 작품공모’, ‘한국창작음악합창제 작곡공모’, ‘한민족 창작음악축전’의 총 7개로 파악되었다.

### 가. 대구 국제 현대음악제 작품공모

대구국제현대음악제는 젊은 음악인의 모임이 주관하는 현대음악제로 현대음악제의 작품을 공모전의 형태로 모집하고 있다. 젊은 음악인의 모임은 대구와 서울 소재의 대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이 현대음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서로간의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만든 모임으로, 1991년 제1회 대구현대음악제를 개최하였는데, 2001년부터는 그 정식명칭을 대구국제현대음악제로 바꾸어 개최해오고 있다.

참가자격은 2010년 기준으로 만35세 이하의 석사과정까지의 학생이거나 만30세 이하의 내·외국인이며, 실내악곡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 편성은 매년 새로이 공고된다. 악보심사를 거쳐 결정된 공모 당선작은 대구국제현대음악제의 공모작품 연주회에서 연주되며 당선작의 연주는 주최측에서 책임지고 있다.

<표 21>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작품공모 요강

공모전명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작품공모
주최기관	대구국제현대음악제
개최취지	—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 ·제출마감: 1월
참가자격	만35세 이하의 석사과정까지의 학생이거나 만30세 이하의 내·외국인(2010년 6월 30일 기준)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 Flute, Clarinet, Violin, Viola, V.cello, Piano, Percussion 내에서 2-5중주</li> <li>▪ 콩쿨 당선작은 제외함.</li> <li>▪ 특수 타악기는 연주시 본인 부담</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보심사</li> <li>▪ 연주단체: 대구현대음악 앙상블</li> <li>▪ 연주일시: 6월 음악제 기간 중</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선자에 한해 대구국제현대음악제 공모작품 연주회에서 연주 됨.</li> </ul>

#### 나.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공모

대구작곡가협회는 젊은 음악도들에게 작곡에 대한 의욕을 진작시킴으로써 새로운 작품의 확충 및 신인 발굴을 목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소재하에 있는 대학생들을 참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곡부문과 실내악 부분의 작품을 모집한다. 연주심사시 소요되는 비용은 작곡자가 부담하며,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작곡료와 상장이 수여된다. 선정 작품에 한해 대구작곡가협회의 정기작품 발표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표 22>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공모 요강

공모전명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공모
주최기관	대구작곡가협회
개최취지	젊은 음악도들에게 작곡에 대한 의욕을 진작시킴으로써 새로운 작품의 확충 및 신인 발굴함에 있음.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 ·신청마감: 8월 ·심사발표: 9월
참가자격	대구, 경북 소재 하에 있는 대학생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곡부문 -독창자 1인(Sop, Alto, Ten, Bass중 택1) + 피아노 반주 -5분 이내</li> <li>▪ 실내악부문 -편성 자유 -독주 1인부터 4중주까지 -7~8분 내외</li> <li>▪ 1인 1편만을 출품할 수 있음</li> <li>▪ 가곡부문의 경우 피아노 외의 다른 악기가 포함될 수 없음.</li> <li>▪ 공개연주 되지 않은 미발표된 신작품</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주와 관련된 비용은 본인 부담</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상: 선정 작곡자에게 상장 수여</li> <li>▪ 선정 작곡자에게 소정의 작곡료를 지급.</li> <li>▪ 특전: 선정 작품은 10월 대구작곡가협회 정기작품발표회에 발표할 수 있는 특혜를 줌.</li> </ul>

#### 다. 범음악제 작품공모

범음악제는 1969년 서울현대음악제로 시작된 최초의 현대음악 페스티벌로, 1976년 범음악제로 명칭을 바꾸었다. 범음악제는 세계에서 연주되고 있는 음악적 최신정보를 소개하고 범세계성을 띤 보편적인 음악언어를 창조해 내기 위한 경험의 장을 마련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창작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대, 30대의 작곡가들이 데뷔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 줌으로써 한국의 젊은 작곡가들이 세계무대로의 진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음악제의 핵심적 작업으로 삼으며, 이에 따라 범음악제에서 연주될 작품들을 공모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ISCM한국지부 회원 또는 2010년 기준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인 젊은작곡가를 대상으로 한다. 작품제출규정의 작품 편성은 매년 달라지며, 지정된 악기 편성만을 모집하고 있다. 음악제에서 1인 1작품을 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러 작품을 공모할 수 있다. 공모 당선작에 한해 주최측에서 섭외한 연주 단체의 연주로 음악제에서 연주되어진다.

<표 23> 범음악제 작품 공모 요약

공모전명	범음악제 작품 공모
주최기관	범음악제 운영위원회
개최취지	-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제출마감: 6월 (1차공모), 7월 (2차공모)
참가자격	ISCM한국지부 회원, 젊은작곡가 (1980년 이후 출생자)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성</li> <li>·1차공모</li> <li>1. 연주단체: Enhake Ensemble(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라리넷, 피아노 2중주</li> <li>-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 3중주</li> <li>-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3중주</li> <li>-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4중주</li> </ul> </li> <li>2. 연주단체: Absolut Trio(스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아노 트리오 -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li> <li>- 피아노 바이올린 2중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아노 솔로</li> <li>- 바이올린, 첼로 2중주</li> <li>- 피아노 첼로 2중주</li> <li>·2차 공모 연주단체: '10 Pan Festival Ensemble(한국)</li> <li>- 클라리넷 + 첼로 + 피아노 (3중주)</li> <li>- 2 클라리넷 + 첼로 (3중주)</li> <li>- 클라리넷 4중주</li> <li>- 2클라리넷 + 2 첼로 + 피아노 (5중주)</li> <li>- 4 클라리넷 + 2 첼로 (6중주)</li> <li>- 4 클라리넷 + 2첼로 + 피아노 (7중주)</li> <li>▪ 지정된 편성의 작품만을 공모함</li> <li>▪ 1인 1작품을 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공모는 여러 작품 가능</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보심사</li> <li>▪ 10월 범음악제 연주회 기간 중</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 당선작에 한해 음악제에서 연주됨.</li> </ul>

#### 라. 서울창작음악제

서울창작음악제는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의 주최로 개최되는 음악제이다. 새로운 작품의 확충과 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해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작품제출규정은 현대적 기법이나 실험적 작품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악애호가들이 즐길 수 있는 한국적이고 예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미발표 작품으로 가곡부문, 실내악부문, 합창부문의 작품을 모집한다. 연주회 소요 경비는 협회에서 부담하나, 실내악 당선자의 연주는 4인까지 협회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곡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당선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되며, 당선작은 협회 주최로 연주된다.

〈표 24〉 서울창작음악제 요강

콩쿠르명	서울창작음악제
주최기관	(사) 한국음악협회
개최취지	새로운 작품의 확충 및 신인 발굴, 육성함에 있음.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 ·신청마감: 3월 ·심사발표: 4월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함 (단, 대학졸업 이상자는 본 협회의 회원에 한하며, 회원이 아닐 경우 응모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함)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적 기법이나 또는 실험적 작품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악애호가들이 즐길 수 있는 한국적이고 예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미 발표 작품으로 함.</li> <li>▪ 가곡부문 -독창자 1인(Sop, Alto, Ten, Bass중 택1)+ 피아노 반주, 3분 내외</li> <li>▪ 실내악부문 -편성 자유. 독주 1인부터 7중주까지. -단 두 대의 피아노가 들어간 편성은 불가함. 인성을 포함 할 수 있음, 10분 내외</li> <li>▪ 합창부문 -혼성합창(피아노 반주 또는 무반주), 6분 내외</li> <li>▪ 관현악부문 -2관, 3관(협주곡 제외), 12분 내외</li> <li>▪ 1인 1편만을 출품할 수 있음.</li> <li>▪ 가곡, 합창 부문의 경우 피아노 외 다른 악기가 포함될 수 없음.</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주회 소요경비는 협회에서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타악기 및 특수 악기 대여료는 해당 작곡가가 부담하여야함.</li> <li>▪ 피아노 건반 연주 외의 기법 사용 시 피아노는 작곡자가 일부 부담할 수 있음.</li> <li>▪ 실내악 당선작 연주비는 4인까지 음협이 지급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함.</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선작은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함</li> <li>▪ 당선작은 6월 본 협회 주최로 부문별 부분 연주 발표함.</li> <li>▪ 시상내역은 변경 될 수 있음.</li> </ul>

#### 마. 운지회 작품공모

운지회는 음악의 본질에 뜻을 둔 이들의 모임의 작곡가협회로 작품발표와 연구 및 교육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회원들만을 위한 활동이 아닌 한국 작곡계 모두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운지회의 작품공모는 창작 관현악 작품 연주에 중점을 두고 회원, 비회원을 불문하고 작곡가들의 관현악작품 연주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편성또한 실내악곡이 아닌 관현악곡을 모집하고 있고, 당선작에 한해 운지회 실내관현악 연주회에서 연주되어진다.

<표 25> 운지회 작품공모 요강

공모전명	운지회 작품공모
주최기관	운지회
개최취지	창작 관현악 작품 연주에 중점을 두고 회원, 비회원을 불문하고 작곡가들의 관현악작품 연주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 ·제출마감: 6월
참가자격	제한없음
제출작품규정	▪ 편성: 국악 독주악기와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심사 및 연주	▪ 악보심사 ▪ 연주일정: 9월중
시상내용 및 특전	▪ 당선작에 한해 ‘운지회 실내관현악 연주회’에서 연주됨.

#### 바. 한국 창작음악합창제 작곡공모

한국 창작음악합창제의 작곡공모는 한국 합창의 창조적 발전과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하여 보급시키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작곡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대전시립합창단이 주최하고 있다. 참가자격은 작곡가 및 작곡을 전공하는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이며, 3분이상 10분 이내의 합창곡을 모집한다. 1인 2곡까지 제출 가능하며, 심사는 악보심사와 실연심사로 이루어진다. 입상자에 한하여 작곡료가 주어지며, 수상작품은 대전시립합창단의 한국창작음악합창제에서 연주된다. 또한 특전으로 수상 작품은 정기연주회 및 수시 연주회를 통해



연주됨과 동시에 음반으로 출판되며, 합창단의 특정 레퍼토리가 필요할 때 작곡 및 편곡자로 우선적으로 위촉받게 된다.

<표 26> 한국 창작음악합창제 작곡공모 요강

공모전명	한국 창작음악합창제 작곡공모
주최기관	대전시립합창단
개최취지	한국 합창의 창조적 발전과 새로운 레퍼토리를 개발하여 보급시키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작곡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함.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 ·신청마감: 2월 ·입상발표: 3월
참가자격	작곡가 및 작곡 전공 대학 · 대학원 재학생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창곡(여성, 남성, 혼성합창곡)</li> <li>▪ 자유 내용 · 형식</li> <li>▪ 3분 이상 10분 이내</li> <li>▪ 반주부: 아카펠라를 비롯한 피아노, 오르간 다수의 악기반주 등 자유</li> <li>▪ 1인 2곡 이내</li> <li>▪ 심사일 기준 미 발표작</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악보심사(작곡기법, 합창연주 실현성, 표현기법, 반주기법 등)</li> <li>▪ 실연심사(연주효과성, 작품성 등)</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상: 입상자에 한하여 작곡료로 500,000원 시상</li> <li>▪ 수상작품은 대전 시립 합창단 한국 창작 음악 합창제에서 연주됨(4월)</li> <li>▪ 수상 작품은 한국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하여 정기연주회 및 수시연주회를 통해 적극 연주함과 동시에 음반으로 출판</li> <li>▪ 수상자는 본 합창단의 특정 레퍼토리 필요시 작곡자 및 편곡자로 우선 위촉</li> </ul>

#### 사. 한민족 창작음악축전

한민족 창작음악축전은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의 주최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발굴하여 문화강국의 면모를 세계에 홍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참가자격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1979년 10월 9일 이전 출생자로 국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또는 국외에 거주하는 한민족이다. 작품내용은 한국을 상징하고 한국의 얼이 담긴 시대정신이 있는 작품이어야 하며, 2관 편성 이상의 관현악곡을 모집한다. 1, 2차의 악보심사를 거쳐 본선 심사는 공개연주로 이루어지며, 본선시의 연주는 협회에서 연주단체를 섭외하고 연주회 소요 경비 또한 협회에서 부담한다. 당선작은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되며, 시상 내역은 변경될 수 있다.

<표 27> 한민족 창작음악축전 요강

공모전명	한민족 창작음악축전
주최기관	(사)한국음악협회
개최취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을 발굴하여 문화강국의 면모를 세계에 홍보하는데 있음.
개최주기 및 개최월	1년 / ·신청마감: 10월
참가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79년 10월 9일 이전 출생자로 국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단, 한국음악협회회원에 한함)</li> <li>▪ 1979년 10월 9일 이전 출생자, 국외에 거주하는 한민족(국적 불문)</li> <li>▪ 한국음악협회회원이 아닌 경우 응모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함.</li> </ul>
제출작품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내용은 한국을 상징하고 한국의 얼이 담긴 시대정신이 있는 작품이어야 함(단, 초연곡에 한함)</li> <li>▪ 편성: 2관 편성 이상의 관현악곡(협주곡은 제외)</li> <li>▪ 연주시간 : 15분 내외</li> </ul>
심사 및 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차는 악보심사(단, 2차 심사 통과자는 파트보를 제출하여야 함)</li> <li>▪ 3차의 본선심사는 공개연주로 함.</li> <li>▪ 선정 위원회는 규정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음.</li> </ul>
시상내용 및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선작은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함(상금 미정)</li> <li>▪ 당선작은 본 협회에서 연주 또는 타 교향악단에 발표를 알선함. (단, 연주회 소요경비는 협회에서 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특수 악기 및 타악기의 임차는 해당 작곡자가 부담하여야 함)</li> <li>▪ 시상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2009년 기준

<표 21> ~ <표 27>을 살펴보면 작곡 공모전은 모두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곡 공모전의 개최일시를 살펴보면 범음악제 작품공모와 운지회 작품공모 2개가 6월에 개최되고 있고, 나머지 공모전들은 1월, 2월, 3월, 7월, 8월, 10월에 각각 개최되고 있다.

작곡 공모전의 제출 작품 규정을 살펴보면 대구국제현대음악제와 범음악제는 실내악 작품을 공모작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지회 작품공모에서 협주곡 작품을, 한민족 창작 음악축전에서 관현악 작품을 각각 공모하고 있다. 합창음악은 한국 창작 합창음악제에서 공모하고 있고, 대구작곡가협회 주최 대학생 작품공모에서는 가곡과 실내악 부문을, 서울창작음악제에서는 가곡, 실내악, 합창, 관현악 부문으로 다수 부문을 동시에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전에서의 심사는 대구국제음악제 작품공모, 범음악제 작품공모, 운지회의 작품공모에서는 악보심사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공모, 서울창작음악제, 한국 창작음악 합창제, 한민족 창작음악 축전의 본선에서는 연주심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공모전에서의 시상을 살펴보면,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공모, 서울창작음악제, 한민족 창작음악 축전에서 당선되면 작곡자에게 소정의 상금 또는 작곡료를 지급하고, 연주회를 통해 발표된다. 한국 창작음악 합창제의 작곡공모에서의 입상자에게는 작곡료와 연주회에서의 연주와 함께 음반으로 출판되며, 합창제를 주최하는 대전시립합창단의 특정 레퍼토리 필요시 작곡자 및 편곡자로 우선 위촉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순위보다는 좋은 작품을 선정하여 연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구국제현대음악제와 범음악제, 운지회의 공모 작품 당선작은 음악제 또는 협회 주최의 연주회에서 연주된다.

### 3. 작곡 캠프 및 여름학교

작곡 캠프와 여름학교는 대학교의 방학기간 중에 개최되고 있으며, 캠프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작곡에 대한 이론적 내용의 학습과 실습 및 발표가 이루어진다. <표 28>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작곡 캠프와 여름학교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창악회 여름 작곡 캠프’, ‘향사회 여름 작곡 캠프’, ‘대관령국제음악제 여름학교’로 2개의 작곡 캠프와 하나의 음악학교가 개최되고 있다.

<표 28> 국내 작곡 캠프 및 여름학교 현황

구분	개최명	주최
작곡캠프 · 여름학교	창악회 여름 작곡 캠프	창악회
	향사회 여름 작곡 캠프	향사회
	대관령국제음악제 여름학교	대관령국제음악제

### 가. 창악회 여름 작곡 캠프

창악회는 한국작곡가협회의 산하단체로 작곡콩쿠르 이외에도 여름캠프를 주최하고 있다. 2010년도 창악회 여름 캠프는 타악기 앙상블 작곡을 주제로 하여 개최된다. 캠프기간은 2010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3박 4일의 일정으로 대학의 방학 기간 중에 개최되며, 선착순으로 60명을 모집하고 있다.

타악기 앙상블 작품 분석 및 악기론 연구와 조별 학습으로 직접 연주 기회가 제공되는 타악기 연주 실습이 주요 캠프 활동이며, 타악기 앙상블 작품 발표와 실습을 하게 된다.

<표 29> 창악회 여름 작곡 캠프 요약

캠프명	창악회 여름 작곡 캠프
주최기관	창악회
주제	타악기 앙상블 작곡 워크숍
개최일시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 6월 - 7월 중(3박4일)</li> <li>▪ 장소 : 강원도</li> </ul>
캠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악기 앙상블 작곡 워크숍</li> <li>▪ 타악기 앙상블 작품 분석 및 악기론 연구</li> <li>▪ 타악기 연주 실습 : 조별 학습으로 직접 연주 기회 제공</li> <li>▪ 타악기 앙상블 작품 발표 실습</li> </ul>

## 나. 향사회 여름 작곡 캠프

향사회는 부산 지역에서 한국작곡가협회의 산하단체로 작곡 콩쿠르와 여름 작곡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개최일시는 6월말 대학의 방학 기간 중에 개최되고 있다. 참가대상은 향사회 회원 및 전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며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향사회 여름 작곡 캠프는 강사를 초빙하여 국악작곡 입문과, 작곡, 편곡을 위한 국악기 이해에 대한 강의와 국악 작곡, 편곡의 실습이 이루어진다.

<표 30> 향사회 여름 작곡 캠프 요강

캠프명	향사회 여름 작곡 캠프
주최기관	향사회
주제	국악 작곡
개최일시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6월 중(1박 2일)</li> <li>▪ 장소: 부산</li> </ul>
캠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악과 교수 초빙: 국악 이론 강의</li> <li>▪ 국악 연주인 초빙: 국악 연주 및 국악기 이해</li> <li>▪ 국악작곡 입문</li> <li>▪ 작곡, 편곡을 위한 국악기 이해</li> <li>▪ 국악 작곡편곡 실습</li> </ul>

\*2009년 기준

## 다. 대관령국제음악제 음악학교

대관령 국제음악제 음악학교는 강원도에서 열리는 최고 수준의 음악제인 대관령국제음악제의 주최로 열린다.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정상급 연주자들의 공연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음악제와 젊은 음악도들을 양성하기 위한 음악학교가 개최되고 있다.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피아노와 작곡 마스터 클래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악기 부문은 실내악 레슨 이외에도 마스터 클래스, 학생연주회, 음악가와의 대화 등이 구성되어 있다. 음악학교에서는 집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 기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한다. 작곡 부문의 교수는 외국의 작곡가 교수이며, 마스터 클래스로만 수업이 이루어진다.

여름학교 참가자는 저명 연주가 시리즈, 떠오르는 연주자 시리즈, 음악가와의 대화 등 음악제의 모든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표 31> 대관령국제음악제 음악학교 요강

음악학교	대관령국제음악제 음악학교
주최기관	대관령국제음악제
주제	작곡 마스터 클래스
개최일시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7월 - 8월 (14일)</li> <li>▪ 장소: 강원도</li> </ul>
캠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 작곡과 교수 초빙</li> <li>▪ 마스터 클래스</li> <li>▪ 저명 연주가 시리즈, 떠오르는 연주자 시리즈, 음악가와의 대화 등 음악제 모든 프로그램 관람</li> </ul>

### C. 연구결과 요약

본 논문에서는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들이 참가 가능한 작곡콩쿠르와 공모전, 작곡 캠프 및 여름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유형별 현황을 파악하였다. 13개의 작곡 콩쿠르와 7개의 공모전에 대해 주최기관, 개최취지, 개최주기 및 개최월, 참가자격, 제출 작품 규정, 심사 및 연주, 시상내용 및 특전의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알아보았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을 주최기관으로 분류하여 보면 언론사, 음악협회·작곡단체 및 연주단체, 문화재단 및 연주단체, 음악제의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콩쿠르는 4개로 동아음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와 같이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콩쿠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협회 및 작곡단체와 연주단체에서 주최하는 콩쿠르는 10개로 한국음악협회(2개의 공모전 주최)와 한국작곡가협회의 산하단체에서 주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

은 콩쿠르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문화재단과 음악제에서 주최하는 콩쿠르는 각각 3개로 나타났다.

둘째, 개최취지를 살펴보면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의 가장 큰 목적은 우수한 젊은 작곡가의 발굴에 있다. 또한 새로운 작품을 확충하고 창작음악의 연주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콩쿠르와 공모전은 9월 ~10월에 7개, 6월에 4개가 개최되고 있었으며, 5월에는 개최되지 않고 있었다. 개최일시로 미루어 보아 반수 이상의 콩쿠르와 공모전이 하반기에 개최되고 있으므로 대학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콩쿠르와 공모전의 개최주기는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는 국제 윤이상 작곡상과 동아음악콩쿠르를 제외하면, 모두 1년을 주기로 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콩쿠르들이 매년 개최되고 있는 만큼, 작곡 전공자들에게는 그만큼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참가 자격에 있어 본 연구자가 조사한 20개의 콩쿠르와 공모전은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는 모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중 영남작곡콩쿠르와 창악회 작곡콩쿨, 향사회 작곡콩쿠르, 운지회 작품공모에서는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단 대구와 경북 소재하에 있는 대학생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 공모만이 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대부분의 콩쿠르와 공모전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중의 전공자들과 젊은 작곡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작곡 전공자에게 있어 경험이 많은 젊은 작곡가들과의 경쟁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의 작품이 입상한다면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동시에 작곡가로서의 자신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섯째, 콩쿠르와 공모전의 제출 작품 규정을 작품 모집 부문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실내악, 가곡 및 합창음악, 관현악 및 협주곡, 피아노 부문으로 나뉜다. 실내악 부문은 8개의 콩쿠르와 공모전에서 모집하고 있었으며, 가곡 및 합창음악은 4개, 관현악 및 협주곡은 3개, 피아노곡은 2개의 콩쿠르와 공모전에서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저널 음악콩쿠르와 대구작곡가협회주최 대학생 작품공모, 서울창작음악제에서는 복수의 작품을 모집하고 있다. 제출 부문을 다양하게 모집하고 있는 만큼 전공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작품 부문을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부문의 작품을 써보는 것이 작곡가로서 성장하는 데 밀거

름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여섯째, 심사는 악보심사와 연주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콩쿠르 예선에서는 악보심사가 이루어지며, 본선 심사시 연주심사는 공개적인 연주회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신회 작곡 콩쿨과 대구국제현대음악제 작품공모, 범음악제 작품공모, 운지회의 작품공모에서의 심사는 악보심사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구국제현대음악제와 범음악제, 운지회의 작품 공모에서 악보심사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순위를 가려 시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제와 연주회에서의 연주가 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주 심사 시에 연주자의 섭외와 연주비용을 모두 작곡가가 부담해야 하는 콩쿠르와 공모전은 7개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13개의 콩쿠르와 공모전에서는 연주자 섭외 및 비용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을 주최측에서 지원하고 있다. 모든 콩쿠르와 공모전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기에 심사는 역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주최측에서는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결과에 대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공자가 공모전과 콩쿠르에 참가할 때에는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주 심사가 있을 경우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콩쿠르와 공모전에서의 시상내역을 살펴보면 1, 2, 3위 또는 대상, 최우수상으로 시상하고 있었으며, 국제 윤이상 작곡상 대상 수상자는 미화 2만 달러로 최고액수의 상금이 수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음악저널 전국음악콩쿠르, 음연 작곡콩쿨, 중앙 음악콩쿠르, 한국 피아노두오 작곡콩쿨 4개의 작곡콩쿠르에서는 구체적인 시상 내역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동아음악콩쿠르, 영남음악콩쿠르, 음악저널전국음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를 제외한 콩쿠르와 공모전에서는 입상작에 한하여 특전으로 작품 연주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콩쿠르마다 최고상의 시상내역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각 콩쿠르마다 최고상의 시상내역을 다르게 나타나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1위 입상이지만 콩쿠르에 따라 1등 또는 대상, 최우수상 등으로 시상하고 있기 때문에 시상내역과 함께 순위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수의 콩쿠르와 공모전에서 특전으로 제공하는 연주는, 콩쿠르와 공모전에 참가하는 작곡가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며, 또한 각자의 실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여덟째, 작곡 캠프 및 여름학교는 대학 방학기간 중에 개최되며, 작곡 캠프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과 세미나등은 참가자로 하여금 단기간에 집중적인 학습이 가



능하게 한다. 여름 음악학교는 마스터클래스로 운영되며, 참가자에게 음악제 기간 동안 열리는 모든 연주회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게 하여 음악적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작곡캠프와 여름학교의 참가는 학문적인 성장과 함께 동료 작곡가들을 만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콩쿠르는 교육적인 면에서 보면 자신의 교육과정을 재검토해보고 그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는데 있고, 유사한 형태로 개최되는 공모전을 통해서도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콩쿠르와 공모전은 작곡 전공자들에게 있어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참가자는 개최 취지와 제출 작품 규정 등을 먼저 살펴보고 자신이 참가하고자 하는 방향과 목적에 맞는 콩쿠르와 공모전에 참가한다면, 이는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작곡가가 되기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 A. 결론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은 작곡 전공자들에게 작품 연주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작곡가로서 나아가는데 있어 등용문의 역할을 한다.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이 작곡가로서의 실력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콩쿠르와 공모전, 여름캠프를 중심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작곡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에게 작곡콩쿠르와 공모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에서 2009년부터 2010년에 개최되었거나 개최 예정인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 작곡 캠프 및 여름학교를 분석한 결과 작곡 콩쿠르 13개, 공모전 7개와 작곡 캠프 2개, 여름학교 1개로 총 23개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콩쿠르와 공모전의 개최취지는 유능한 신인의 발굴과 창작 작품을 확충하는 데에 두고 있다. 격년제로 개최되는 동아음악콩쿠르와 국제 윤이상 작곡상을 제외한 18개의 콩쿠르와 공모전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17개의 콩쿠르와 공모전에서는 참가자격을 대학생 및 젊은 작곡가로 제한하고 있다. 참가자격을 제한을 두는 것은 대학생들과 젊은 작곡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은 신인을 발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연주기회를 부여하는 등, 참가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의 제출 작품 규정을 살펴보면 실내악, 가곡 및 합창곡, 관현악 및 협주곡, 피아노 부문으로 4개의 모집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실내악 부문은 8개의 콩쿠르와 공모전에서 모집하여 가장 많이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곡 및 합창음악 4개, 관현악 및 협주곡 3개, 피아노 부문은 2개로 나타났다. 각 콩쿠르와 공모전에서 제출 부문이 다양하게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하는 작곡 전공자들은 원하는 참가 작품 부문을 선택할 수 있다.

셋째,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서의 심사는 악보심사와 연주심사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3개의 콩쿠르와 공모전에서는 악보심사만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17개의 콩쿠르에서는 악보심사와 연주회 형태의 공개심사로 연주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주심사에서 연주자의 섭외와 연주비용을 작곡가가 부담해야 하는 콩쿠르와 공모전은 7개이고, 13개의 콩쿠르와 공모전에서는 연주자 섭외와 비용에 대해 주최측이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의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최기관에서 심사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하며, 심사결과를 공개하여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콩쿠르와 공모전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넷째, 시상금 최고상을 기준으로 1위 또는 대상이 시상되고 있으며,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고 있다. 또한 4개의 콩쿠르를 제외한 16개의 콩쿠르와 공모전에서는 특전으로 연주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번의 연주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작품의 발굴과 창작곡의 연주 활성화의 개최 취지에 맞게 지속적으로 연주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갖는 교육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콩쿠르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음악계에 널리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무대경험을 갖게 하여 교육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의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콩쿠르와 공모전에의 참가는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입상하였을 경우 작곡가로서 나아가는 데 등용문의 역할을 한다.

둘째,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은 참가하는 그 자체 또는 콩쿠르와 공모전에서의 입상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이것은 도전의식을 갖게 하여 작곡 전공자들에게 창작에의 의지를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국내의 현대음악 작품 창작에 기여하게 되고, 콩쿠르와 공모전에서의 공개 연주 심사나 입상작품의 연주회를 통해 대중에게 창작 작품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창작 작품의 연주 활성화와 청중과의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예술적 가치를 지닌 창작 작품들이 일회성의 연주에 그치지 않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창작 작품들에 대한 활용 방안이 제시되어 국내 창작 작품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창작 작품은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이 창작 과정을 통하여 생산되는 결과로 창작 작품은 창작한 사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창작은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예술교육을 통해 가능하게 한다. 작품의 창작은 작곡가나 작곡 전공생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베리 영 컴포저(very young composer)와 같은 음악 교육 프로그램은 어린이들도 작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것은 음악을 체험하게 하여 창의성을 발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창작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창작 문화가 활성화 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콩쿠르 중 세계국제음악콩쿠르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콩쿠르는 국제 윤이상 음악상, 서울 국제 음악 콩쿨, 제주국제관악콩쿠르이다. 그러나 작곡 전공자가 참가할 수 있는 콩쿠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황을 토대로 볼 때 국내에서도 권위 있는 작곡 콩쿠르의 개최를 통해 신인들에게 기회를 확대하여 한국 작곡계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의 적극적인 참여는 창작음악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나아가 국내의 창작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작품들의 발표는 한국 창작음악의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 B. 제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들이 참가할 수 있는 콩쿠르와 공모전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콩쿠르와 공모전에 대한 조사 내용을 세분화하고 충분한 조사대상을 확보하여 보다 깊이 있는 후행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콩쿠르와 공모전에 대한 현황연구에 그치지 않고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들과 젊은 작곡가들을 대상으로 콩쿠르와 공모전에 대한 인식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시작으로 하여 작곡 콩쿠르와 공모전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국내 창작 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콩쿠르와 공모전이 보다 나은 길로 나아가는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문자 외 공저(2001). **들으며 배우는 서양음악사**. 서울: 심설당.
- 박찬석(1979). **올바른 피아노 교육**. 서울: 세광출판사.
- 세광음악출판사 편집부(1996). **음악대사전**.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이석원(1997). **현대음악-아방가르드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국문화예술진흥원(2009). **문예연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6). **예술페스티벌에 관한 실태조사**.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Copland, A.(1987). **현대음악입문**. 서울: 창지사.
- Gieseler, W.(1994). **20세기의 작곡**. 김달성 역. 서울: 세광출판사.
- Griffith, P.(1994). **현대음악사**. 신금선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Salzman, E.(2001). **20세기 음악**. 김혜선 역. 서울: 도서출판 다리.

### <학위논문>

- 박태희(2006). **초등학생 피아노콩쿠르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연구: 부산·김해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혜숙(1980). **음악콩쿨의 효능과 그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수진(2004). **고교생 대상 음악콩쿠르와 대학수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수(2006). **‘대구작곡가협회’ 작품발표회의 역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홍종건(2005). **청소년합창제와 경연대회 프로그램 분석을 통한 지도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학술지>

권덕원(1996). **창의적 음악 학습에 관한 소고**. 예체능교육연구, 1, 25-51.

김용진(1993). **한국 현대음악의 전망**. 음악연구, 10, 5-23.

박순희(1996). **현대음악의 접근과 이해**. 충남대학교 학술문화연구소 논문집. 8. 23-33.

이강순(1986). **서울에서 개최되는 5개 주요 피아노 콩쿠르 지정곡에 대한 연구**. 음악연구, 5, 149-170.

임정덕, 장영재(1995). **순위투표에 의한 위원회 결정의 공정성 검증: 동아 음악 콩쿠르에 의한 분석**. 경제학연구, 43(1), 21-43.

장근주(2004). **창의적 음악 교육을 위한 음악 활동에 대한 연구**. 음악과 민족. 28, 456-478.

정지영(2008) **한국 현대 창작 작품의 사회·문화적 활용성에 대한 제안적 연구**. 낭만음악 21(1), 161-184.

J. Hoover(1986). **New Music for Your Students: Sponsoring a Composers Competition**. Music Educators Journal, 73(3), 26-28.

### <신문·잡지 기사>

김형주(1982). **음악콩쿠르의 재검토**. 음악세계, 33-35.

박경우(2004). **한국 음악콩쿠르를 진단하다**. 음악저널, 32-39.

성진희(1988). **음악콩쿨 필수적인 제도인가**. 월간객석.

송문홍(1988). **한국 명연주가들의 등용문: 국내 유명 음악 콩쿠르들**. 음악동아, 82-87.

이일(2007). **바르게 읽어 본 한국의 음악콩쿠르**. 음악저널, 40-43.

## <인터넷 사이트>

국제음악콩쿠르세계연맹(WFIMC) 홈페이지 <http://www.fmcim.org/www/>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홈페이지 <http://nyphil.org/index.cfm>  
 대광령국제음악제 홈페이지 <http://www.gmmfs.com/>  
 대구국제현대음악제 홈페이지 <http://www.dcmu.com>  
 대전시립합창단 홈페이지 <http://www.djchorus.or.kr/>  
 동아음악콩쿠르 홈페이지 <http://www.donga.com/concours/music/>  
 범음악제 홈페이지 <http://www.panmusic.or.kr/index.htm>  
 세일음악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seilmcf.org/home/>  
 신음악학회 홈페이지 <http://www.nmusic.or.kr/>  
 야후백과사전 <http://kr.dictionaty.search.yahoo.com>  
 영남작곡가협회 홈페이지 [http://www.ynca.or.kr/music/music\\_04.html](http://www.ynca.or.kr/music/music_04.html)  
 윤이상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www.yunmusicprize.org/>  
 음악저널 홈페이지 <http://www.eumakjournal.co.kr/>  
 음연 홈페이지 <http://www.eumyoun.com/music/concours4.asp>  
 중앙음악콩쿠르 홈페이지 <http://concours.join.com/>  
 창악회 홈페이지 <http://cmss.or.kr/>  
 한국음악협회 홈페이지 <http://www.mak.or.kr/>  
 한국작곡가협회 <http://www.composers.or.kr/index.php>  
 한국전자음악협회(KEAMS) 홈페이지 [http://www.keams.org/main\\_kr/](http://www.keams.org/main_kr/)  
 한국피아노두오협회 홈페이지 <http://www.piano-duo.co.kr/>  
 향사회 홈페이지 <http://www.composers1974.com/>  
 화천비목콩쿨 홈페이지 <http://www.bimokconcours.com/index.html>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홈페이지 [www.artsedu2010.kr](http://www.artsedu2010.kr)

## ABSTRACT

### The study on Status of Composition Contest and Competition by the Types

Cho yoon sun  
Major in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Composition contests and competitions are held in purpose of recruiting talented people to perform good works. They promote the students majoring in composition by providing fair opportunities for creation and presentation of their 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composition-major students and to seek for future direction for development. To do so, this study classified and analyzed currently held competitions, contests, and summer camps in Korea for their purposes and submission rule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composition contests and competitions in Korea those of which allow only composition majored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competition and contest is to discover the creative work of the talented. Placing restrictions on eligibility is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college students and young composers. Moreover, the competition and contest should give ongoing support such a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presentation of the work.

Second, the regulation of submission can b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chamber music, songs and choruses, orchestral music and



concertos, and piano sector. The participants can be in the sector they choose.

Third, the screening was conducted by both score assessment and performance assessment. The process should be fair to maintain the authority of the competition and contest the organizers should set the standards for the screening, appoint the right judges and release the result in public.

Fourth, the award certificate and reward is given to the 1<sup>st</sup> place or the Grand Prix. Most competitions and contests provide a privilege for performance of their work. More to this, it should provide ongoing opportunities for performance for vitalization of the work.

The subscription concert of the school is the most common, but limited way for the composition-majored students to perform their work. The preparation process of contests and competitions helps participants to improve their skills. Moreover, winning the prestigious competition can open careers as a composer. Therefore, composition-majors should apply for the right contest and competition in order to receive recognition and get opportunity for play. The active participation in contest and competition leads to activation of creative music and further result in development of Korean contemporary music.